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771호〉
2000년 10월 10일(화)

창간 1956년 4월 11일(주간) 발행인 조규형 편집인겸 주간 김상원 · 비주얼 신호창 인쇄처 동문사 신문사 961 4151 962 7128 F 비상기자실 서울 961 4152 4466 FAX 961 4183 주소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207도 외대 오세관 맞은편) 전화 961 0335 330 4112

사진뉴스

국립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립'으로 대표되는 교육의 공공성이 이젠 사라질지도…

제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지 10년이 됐다. 무너진 장벽 위로 터지는 불꽃을 보며 지르던 환호성의 시간이 지날수록 원성의 소리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그럼 독일 통일을 분석해 보며 한반도의 38선이 자취지는 상을 그려볼까요?

주제기획

이산가족상봉은 통일의 상징, 경의선 복원은 통일의 표현, 지주교류는 거대한 물줄기가 된다.

생활단신

세종대왕님! 큰일났습니다.
상점 간판들이 하나같이 영어입니다.
국제화 시대라고 그런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설 자리는
없는 겁니까? 비상입니다. 비상!
학교 앞 간판으로 본 한글씀씀이 실태,
9면에서 알아봅니다.

학술뉴스

수령중심 일당독재체제인가, 지주 · 군중노선이 실현된 민주체제인가? 북한비로알기 그 첫 번째.

사회뉴스

한강 독극물 방류, 상수원 오염사건 등 삶의 터전을 훼손하는 주한미군.
이들의 '만행'으로 인해 오염지역엔 암 · 백혈병 발병위험에 처리비용 10억여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대통령님, 도대체 언제까지 당하고 살아야 하죠?

학사개편 진행 속 학생의견 배제

적극적인 의견수렴 방안 강구돼야

중복학과통폐합 등 학사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학사개편과 관련한 사안은 학사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 학생회나 단대에서 학생들이 중장기 발전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동양어대 학생회장 오원근(동양 · 베트남어 97)군은 말했다.

또한, 양 배움터 학생회간에도 이견이 존재한다.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중장기 발전안의 모태가 됐던 LG컨설팅안부터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측은 발전안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발전안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현재 학사구조개편안이 그 윤곽을 드러나게 되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장기 발전안에 양배움터 차별화 전략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학사개편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금) 열린 학사구조개편위원회 회의에서는 그 동안 회의를 통해 결성된 소위원회가 여러개의 구조개편안을 검토했으며 그것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했다. 관계자는 "개편안들이 공개하기엔 미비한 상태"라고 밝히고,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2002년 신입생부터 적용을 목적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학사구조개편위원회는 확정안을 결정 하는데 더욱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 위원장 성환용 교수는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며 "되도록이면 운영자의 입장에서 단일안을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우선, 중장기발전안(발전안) 작성시기부터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중장기 발전안이 만들어진 후에도 학사구조개편 문제만을 따로 떼내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그만큼 의견수렴이 미진함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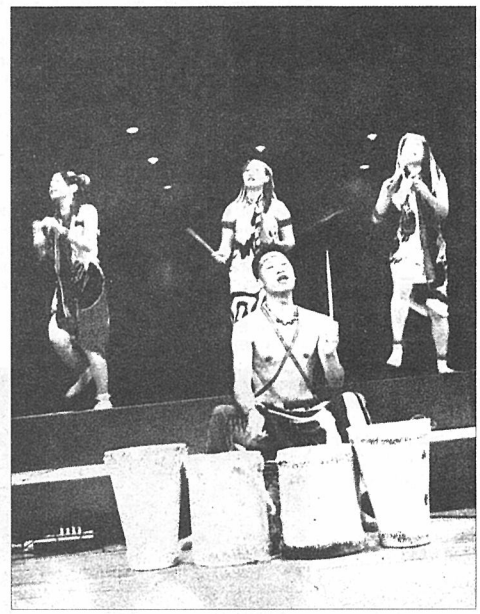
또한, 학교측이 발전안 수립 당시 공청회를 개최하기는 했지만, 수동적인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장 김윤환(사회 · 신방 96)군은 "학사개편안은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의견을 직접 개진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학사구조개편과 관련한 이견들을 좁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 배움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수용 기자 soma-j@hanmail.net



세계속으로

세계민속공연이 지난 6, 7일(토) 양일간 여의도 KBS홀에서 성대하게 진행됐다. 올해는 '축제', '춤판',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3부로 구성해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는 민속공연을 선보였다. 위는 아프리카어과 공연 사진이다. 사진부

서울, 성폭력 의혹사건 발생

성폭력학칙제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성폭력 의혹이 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 3일(화) 오전 9시경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3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중 칸막이 아래로 손이 들어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도망쳐 확인할 수 없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여학생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이를 통해 사건이 '외대 성폭력 사건 발발'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접한 양민정(서양 · 독일어 00)양은 "친구들로부터 자주 이런 얘기를 접하게 된다.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최지영(사범 · 불어교육 96)양은 "그 사건 이후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주위를 한번씩 둘러보게 된다"며 "가해자가 잡혔어도 처벌할 규정이 없으니 더욱 불안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여론화한 여학생위원회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폭력학칙을 조속히 처리할 것과 모든 여자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칸막이 화장공사 △몰래 카메라 설치 여부 조사를 학교측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여학생위원회 빈정은(상경 · 무역 97)양은 "올해만도 피해를 호소한 여학생들이 여럿 있었다. 성폭력 학칙제정이 빨리 이뤄져야 피해자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학칙은 지난 6월 대학평의원회에서 여학생위원회의 제안으로 제정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학생부처장 이응희씨는 "이제 관련부처와 협의만 남았다. 이 달 말까지는 처리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학생처가 준비중인 성폭력 학칙이 여학생위원회가 처음 발의한 내용과 상이해 갈등이 예고된다.

박수용 기자 soma-j@hanmail.net

용인, 반미투쟁선포식 열려

용인배움터 반미투쟁선포식이 지난 9일(월) 늦은 4시 30분 학생회관 앞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반미를 주제로 △매향리 규탄 발언 △독극물 방류 등 환경오염 규탄발언 △독도 문제로 짚어보는 민족 자주권의 중요성 등으로 진행됐다. 노근리, 매향리 등 미군범죄 사진전도 이뤄졌으며, 을동 · 노래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이와 관련 황중환(인문 · 철학 94)군은 "그동안 학생들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며 "이로 인해 반미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바로잡습니다

지난 10월 4일(수)자로 발행된 770호
2면 '수해직원돕기' 기사 중
오한진 부총장 → 이종진 부총장

외대학보

서울배움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무산돼

지난 6일(목)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재적인원 138명(사고, 미선출 78명 제외) 가운데 66명이 참가해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회칙개정안건과 선출안건을 제외한 △총학생회 상반기 결산보고 △상반기 외대발전 투쟁평가 △하반기 전망과 투쟁 및 사업 등을 논의했다.

총학생회 상반기 결산보고를 한 총학생회 총무 정수진(서양 · 노어 95)양은 300만원 가량 적자가 난 것에 대해 "새내기새로배움터에 대한 학생 지원금이 적게 지급돼 자치회비로 부족한 금액을 메꾼 것이 크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상반기 외대발전 투쟁평가에서 참가자들은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이었던 외대 국립화 방안에 대해 "읽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총학생회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김운환(사회 · 신방 96)군은 "내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로서 총학생회는 타학교 사례를 분석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 관련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개정과 외대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안건은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한다.

▶ 관련기사 3면 대학부

서울, 세계영화제 개최

제4회 세계영화제가 지난 9일(월) 개막작인 이안 감독의 '와호장룡'을 시작으로 오는 11일(수)까지 서울배움터 대강당, 노천극장, 도서관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세계 각국의 코믹, 서사 영화를 상영하는 메인 영화제는 수종위인풍접(일본), 책상서랍속의 동화(중국) 등의 작품을 매일 오전 11시부터 3편씩 대강당에서 상영한다. 이를 위해 동 · 서대 9개 과는 작품선정에서 번역, 해설까지 준비했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기획국장 정성희(동양 · 이란어 97)양은 "메인영화제는 세계영화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외대의 특성에 맞게 영화를 통해서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 노천극장에서는 U-571, 미인 등 최근작을 상영하는 심야 영화제가 펼쳐진다.

한편, 통일 문화 · 영화제가 행사기간 중인 10(화) 도서관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문화, 영화를 통해 북한을 알아보자는 취지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이북문화 경연대회, 집체극, 외부 공연이 열리며, 북한영화도 상영된다.

메인영화제(대강당)

	9일	10일	11일
11시	천년불신(이란)	책상서랍속의 동화(중국)	THREE SEASON(베트남)
1시	MESSAGE(이랍)	수종위인풍접 무사태평(일본)	RAMADAN DAN RAMADAN(인도네시아)
3시	인생은 아름다워 (이탈리아)	남부(미국)	DREDS(네덜란드)

심야영화

9일	소용돌이 U-571 (23:00~)
10일	클레멘 에스토르냐 미인 (21:00~)
11일	테스트베이션 (23:00~)
폐막작	골라디아(이태리)

9일 각계 단체 방북

지난 9일(월) 전국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각계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방북대표단이 고려민항 특별기편으로 방북했다.

이들은 지난 8일(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에 초청을 받아 이번 방북을 진행했다. 한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이적단체라는 이유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대표 정광훈, 민주노총(민주노총) 대표 단병호 씨 등은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근거로 방북이 불허됐다.

사회부

외대학보
학술상 · 문학상을
만든 사람들

1962년 1회 : 민홍태, 송명
1964년 3회 : 이수희
1966년 5회 : 최영일
1998년 33회 : 방충현, 정재엽, 명대석, 오승성
1999년 34회 : 기승호, 김필, 추상훈, 박진태
2000년 35회 : 추상훈, 박진태
2001년 36회
당신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모집부문 : (문학상)시 · 소설 · 수필 · 비평
(학술상)인문 · 사회 · 자연과학
마 감 : 12월중순

내주지은는
외대학보

빈 칸

사립학교 법=사악한 법(?)

▲"오, 캡틴, 마이 캡틴"

두 눈 가득 눈물을 머금은 학생들이 하나둘 책상 위에 올라선다. 완고한 집안에서 자란 탓에 수줍음을 많이 타던 학생도, 다분히 반항기가 있던 학생도. 89년 개봉 당시 교사의 참 의미에 대해 깊은 성찰을 던져주었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마지막 장면이다. 제자의 죽음에 대한 학교당국의 문책으로 결국은 학교를 떠나야만 했던 키팅 선생. 입시를 상승과 돈벌이에만 관심있던 사립학교의 권위에 정면 도전했던 그는 결국 백기를 들 수 밖에 없었다. 비슷한 맥락의 싸움이 벌어지는 광경은 2000년 대한민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여름, 머리를 박박 민 고등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길거리로 나서게 한 삼문고 비리재단퇴진 운동, 그리고 구재단 이사진의 재진입 시도가 우려되는 우리학교 또한 구재단세력에 대한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최근 이러한 흐름을 타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여연대, 민교협 등 28개 시민 · 사회단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 사학 척결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그동안 공금횡령, 국가지원금 착복, 부정입학 등 끊이지 않는 사학재단의 잘못은 잘못된 '사립학교법'이 일조하고 있다는 데 입을 모은 이들은 오는 10월 정기국회때 이 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현재 40%의 중 · 고교, 85%의 대학이 속해있는 사학재단의 운영과 제반조건을 명문화한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은 1963년 제정 이래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스물 네 번이나 개정됐을 정도로 정권과 사학의 이익에 많이 휘둘려 왔다.

이에 운동본부는 법 조항중 이사회의 1/3을 친족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1/4로 줄이고 학맥 · 인맥에 따라 교수임용을 가능케 한 부분을 개정할 것, 특히 우리학교처럼 부패문제로 물러났던 이사진이 재단에 복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을 해 줄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학재단의 본래 의미는 교육에 필요한 제반 조건들을 제공, 육성함으로써 본래 공공성을 지녀야 할 교육의 책무를 일임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학재단이 비리의 온상이 된 데 대한 책임은 분명 국가에도 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래 네 번째 교육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우리의 교육철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도대체 '교육철학'이라는 게 존재하고는 있는 건지 의구심을 품는 사람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만은 안된다. 몸살을 앓고 있는 교육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꼭 필요한 것이다.

서 울

이번주 기조처 감사 들어가

오는 11(수)부터 기획조정처(기조처) 감사가 실시된다.

지난 7일 각 부처 업무의 방향과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회가 발족한 후, 이번 학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는 데 기조처가 첫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 기조처 감사는 교내 예산집행과 기획업무가 대대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한 후, 시정되고와 감사대책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진위(중국어과), 서울배움터 부총장는 "이번 감사위원회를 통해 각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며 "기조처 감사는 10월 한달 동안 진행 될 듯 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의 위원은 박동률(무역학과)교수, 이진규(서울배움터 후생과장), 유기천(용인배움터 관리과 주임)이다.

추진단 내규 규정화할 방침
9일(월) 규정심의위원회 통해 심의

종장기발전안 추진단 2차 회의가 지난 4일(금) 기획조정처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각 과,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안을 검토하고, 소규모 단 내규를 규정화 할 것 △한 배움터 자율운영체제 특별위원회 구성 방법 검토 △각 부서별 추진위원 선정을 결정했다. 또한, 추진단 내규의 규정화 방법은 지난 9일(월) 6시에 열리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추진단은 오는 23일(월) 5시 3학 교내에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기획조정처 주임 서종수씨는 "기획단이 보다 강력하게 발전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규로 정했던 것을 규정화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학과 학과 설명회 및 세미나

일반대학원 한국학과 학과설명회와 세미나가 오는 13일(금) 5시 대학원 210호 강의실에서 열린다. 지난 학기 처음 개설된 한국학과를 알리기 위해 열릴 이날 행사는 한국학과에 출강중인 허용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가 외국인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사례를 강연한다. 한국학과는 정치, 역사, 경제, 문화 등 한국을 공부하며, 한국학 교수 양성을 목표로 설립됐다. 이와 관련 대표 윤승현(2학기)군은 "한국학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해외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 한국학과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교과 주점 열려

한국어 교육과 민속주점이 지난 7일(토) 후문 쉼터에서 열렸다.

'한교인의 밤' 행사 기금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음식마련과 배달 등을 했다.

이 날 제공된 메뉴는 김치전, 파전 등 한국식 안주와 전통술, 전통음료 등이 었다.

또한 주점 분위기를 내기 위해 등나무 주위에 초등을 내달기도 했다.

수시모집 외국어 능력 전형자들 평균 점수 올라

지난 2일(월) 우리학교는 2001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202명을 발표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FLEX 전형과 산학협동전형이 미달돼 올해 수시모집정원 보다 40명 적은 합격자가 나왔다.

그러나, TOEIC, TOEFL전형 합격자들의 평균점수는 작년보다 상승해 TOEIC은 '서울배움터가 944.39점, 용인배움터가 850.48이었으며, TOEFL의 평균점수는 636.38점과 604.16점이었다. 또한 이로 인해 서울배움터의 경우 11명의 TOEIC만점자 중 3명이 불합격했다.

올해 처음 도입돼 28명의 합격자를 낸 자기추천전형에는 여자 인기그룹 S.E.S의 슈양과 신화의 이선우군도 각각 일본어과와 영어과에 합격했다.

이와 관련 입학과 과장 정일환씨는 "자기추천제의 경우 외대에 개설된 학과와 연관성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000아시안 타임 열려, 동대 정총 등 진행

20000아시안 타임 행사가 오는 9(월)에서 11일(수)까지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동양어대 9개과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9, 10일(화)에는 남자부 축구와 여자부 피구 예선전을 펼치고, 마지막 날인 11일(수)에는 이벽장애물달리기대회, 일반계주, 혼합계주, 단체 줄넘기 등 종합경기와 구기 결승, 폐막제가 진행된다.

특히, 동양어대 정기총회가 10일(수) 이번 행사 폐막제 행사로 열려 △단학대회보고 △2학기 사업계획 보고 △하반기 정세전망 및 투쟁과제 정치연설 순으로 진행되며, 동양어대 각 과 노래패, 춤패들이 참여하는 문화제 행사도 진행된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오원근(베트남 97)군은 "동대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동양어대가 화합을 이룰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11(수) 서양어대 정기총회 개최

서양어대 정기총회가 오는 11일(수) 5시 30분 대학원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2700이 완성되는 날'을 기치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2부로 나눠 1부는 △매한리 실천단 활동 보고 △서양어대 학생대표자회의 보고 △활동평가 △정세 발언 등 상반기 활동보고 △과대항 여자 팔씨름 대회 △퀴즈대회 등 과 단합을 주제로 진행한다.

또한, 이 날 서양어대 학생회는 각 과에 선거 공약이었던 중고 컴퓨터를 전달한다.

이와 관련 서양어대 부학생회장 이유경(영어·97)양은 "단합된 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정기총회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행정학과, 모의국무회의 13일(금) 열려

모의국무회의가 13일(금) 6시 대학원 소극장에서 '통일을 생각하는 자, 꿈꾸는 자, 행하는 자'를 주제로 개최된다.

행정학과 학술제의 성격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실제 국무회의를 가상극으로 꾸민 것으로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 이번 주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화해분위기에 맞춰 통일의 전반적인 논의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출연하는 10명의 캐릭터마다 통일을 보는 시각이 달라 주제를 부각시켜 준다. 이번 행사를 위해 과 1.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연출팀, 대본팀, 홍보팀, 실무팀으로 나눠 방학 전부터 준비해왔다.

이와 관련 연출팀장 배대웅(99)군은 "모국의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라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이 우려스럽다"며 "하지만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기 때문에 관객들이 생각을 보다 넓게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단합'을 위해 폴~짝

서울배움터 중·일(일·중)전이 지난 6일(금) 대운동장에서 '경쟁 속에 피어난 화합'이라는 기치 아래 진행됐다. 이에 박항림(동양·중국어 00)양은 "오전에는 과 대항, 오후에는 과 구분없이 경기를 진행해 과 단합도 되고 일본어과 친구들이랑 친해질 수 있어서 좋다"고 행사소감을 밝혔다 사진부 hyodeng@hanmail.net

용 인

스쿨버스 운행변경

지난 2일(월)부터 수지, 수서 스쿨버스의 운행시간과 노선이 총무처가 조사한 운행이용 등의 실사작업 운행을 토대로 변경됐다. 수지노선은 등교시간(8시 20분) 1회, 버스는 인원수 부족으로 인해 기존 교내 순환버스(미니버스)로 운행하며, 그 사이 교내 순환버스는 대형버스로 대체한다. 한편 수서노선은 등교시 오전 8시부터 배차간격 20분으로 3회 운행하며, 하교시는 오후 4시 이후 3회 양재역까지 연장 운행한다.

제어계측공, 로봇연구상 수상

제어계측공학과 로봇학회가 지난 5일(목) 포항대학교에서 열린 제2회 한국지능로봇대회에서 연구상과 인기상을 수상했다. 경북 과학측전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특정분야의 로봇대회(미이크로 마우스, 로봇축구 등)의 개념을 벗어나 자유로운 로봇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회였다. 또한, 대회 후 지난 7일(토) 진행된 인기팀 선정을 위한 무기명 투표에서 우리학교 로봇학회가 대회 수상팀과 진행요원들의 지지를 얻어 인기상을 수상했다.

오는 15일(일) 태국어, 환경학과 모교방문의 날 개최

태국어과는 오는 15일(일) 1시 후복관 교직원 식당에서 모교방문의 날을 개최한다.

선배들과의 교류증진, 친목도모를 위해 2년마다 열리는 이번 행사는 춤, 노래반 공연, 체육대회, O×퀴즈 등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이재혁(95)군은 "선배들과 같이 밤 새도록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재학생들도 많이 참여해 선후배간의 관계가 더욱 두터워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학과 또한 오는 15일(일) 12시 자연과학대 앞마당에서 외비가다, 손말사랑회, NSM(자대 음악 동아리) 등 각 동아리의 공연과 선후배 한 조 되어 노래 부르기 등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매년 해오던 체육대회는 지대 앞마당 운동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이광재(95)군은 "한 자리에서 얼굴 익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 기쁘다"며 "새내기들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일(화) 모의 면접 실시

학생취업정보센터는 오는 10일(화) 도서관 4층 세미나실에서 모의면접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면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전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

롯데그룹, 엘리트 코리아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면접을 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린 뒤 설명을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미 접수는 끝난 상태이지만 4학년 학생들은 참관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학생취업정보센터 안종용씨는 "취업 준비생들이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이다"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생협 조합원 한마당 개최
전통놀이, 전통음식 만들기 등 진행

생활협동조합(생협)학생위원회가 4.5일(목) 양일간 후복관앞에서 조합원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생협의 잉여금을 학생들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로 윷놀이, 제기차기와 같은 전통놀이와 김치전, 야채전, 파전등 전통음식 만들기, 막걸리, 녹차, 땅콩차 등의 전통음료시식회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생협 위원장 김경민(정보산업공·컴퓨터공학 95)군은 "세민전 날짜가 겹쳐 학우들의 참여 저조를 걱정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다행이다"며 "이런 행사가 생협이 열린 공간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물리학과 3일(화) 기념행사 개최

물리학과는 지난 3일(화) 자연과학대 앞마당에서 동문체육대회 및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로 농구, 축구 등 재학생과 동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경기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민경국(95)군은 "과 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전환점이 된 것 같다"며 "선배님들이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일(목)에는 전공강의실에서 일반 상식, 기본개념 등에 대한 물리퀴즈대회를 개최한다.

물리학의 딱딱한 이미지 변화, 과학의 중요성 인식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현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다른 과 학생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사학과 강원도 일대로 답사 다녀와

사학과 학생들은 지난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간 강원도 일대로 답사를 다녀왔다.

한 학기 한 번씩 진행되는 이번 답사는 월정사, 상원사, 술산사지, 오죽헌, 경포대, 관동대박물관 등 여러곳을 직접 돌며 유적답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부하는 자리였다.

이와 관련 답사추진위원회위원장 박종용(95)군은 "아무런 사고 없이 다녀올 수 있어 기쁘다"며 "참가인원이 좀 줄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사람 문화소개 뿐 아니라 시·수필도 맛볼 수 있는 문화예술지입니다

프랑스인 대상 문화예술지 만든 서울배움터 이상훈(서양·불어 94)군을 만나

"결코 가볍지 않은, 그렇지만 결코 경직되어 있지도 않은 문화예술지에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프랑스어로 재조명해 보고, 프랑스인이 느끼는 우리의 문화,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등을 매년 한 권의 책 'Les cahiers de corée'로 엮어 내는 이상훈(서양·불어 94)군의 첫마디이다.

"국내 문화에 불어권을 확대시켜 문화적 이해를 돕고, 대학문화 연구단계를 상승시키기 위해 출판의 필요성을 느꼈어요"라고 말하는 이군은 "또한 외대라는 특수성도 살리고 싶었어요"라고 전했다.

"시, 수필, 만화 뿐 아니라, 학술적인 부분들까지 다양한 장르를 딱딱한 논문 형식의 글이 아닌 쉬운 형식의 이야기들로 학생들이 다가갈 수 있게 다루었어요"라며 "새로운 형식의 글들이 심도 있게 엮어진 책이에요. 여러 방향으로 도움이 될 거에요"라며 자신감을 보인다.

이군이 3년째 편찬하고 있는 'Les cahiers de corée'는 98년 3명의 교수, 2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시작해 현재 2권의 책이 나온 상태이다.

1권에는 한국의 민담 등을 재미있게 불어번역 했으며, 2권에서는 법정스님, 도교, 단군, 철학등 인문 사회분야의 이야기뿐 아니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를 그대로 불어번역한 서민적 이야기들도 담겨 있다.

11월 출판을 목표로 준비중인 3권은 미국인 교수가 쓴 하와이 애니깽들의 정착사, 운율을 그대로 보존하여 불어번역한 시조 등 많은 불거리들이 실린다.

"주제를 설정할 때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청탁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처음 의도와 틀려진 부분이 있을 땐 속상하기도 해요"라며 편찬과정의 어려움도 전한다. 하지만 힘들어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은 "내가 불어번역한 글이 통과되고, 완성된 책을 받아 들었을 때의 기분 때문"이라며 뿌듯한 마음을 드러낸다.

완성된 책 2권은 현재 우리학교 불어과 학생들, 주한 프랑스 대사관 교등학교, 프랑스 문화원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각 대학 불어과, 프랑스 파리의 대학들에도 조금씩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저학년 학생들에겐 쉽지 않을 거에요. 주로 3, 4학년과 대학원 학생들이 보는데 저학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에요"라며 "박시현, Yves Millet, Frederic Boulestrix 교수님들이 책을 만들면서 지적해 주시는 만큼 책의 내용도 탄탄하고요"라고 교수님들의 고마움 또한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군은 "아직 교내에서 이런 책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라며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바램을 전하기도 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고 학생 스스로 전공과정에서 성과들을 이루어 내는 이군을 보며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본다.

이수경 기자 seoulwater63@hanmail.net

서울배움터

구분 / 요일	학생			대학원생	
	아침	점심A	저녁	백반	일품요리
월(9일)	순두부찌개(₩1,300)	콩나물국밥(₩1,400)	상추불고기비빔밥(₩1,500)	무우어묵국(₩2,300)	에호박된장찌개(₩2,500)
화(10일)	대구매운탕(₩1,400)	두부된장찌개(₩1,300)	소고기버섯덮밥(₩1,500)	얼갈이배추국(₩2,300)	휘시키플탱(₩3,000)
수(11일)	육개장(₩1,500)	돈육김치볶음덮밥(₩1,400)	짜장밥(₩1,200)	물오징어찌개(₩2,300)	해물잡탕덮밥(₩3,200)
목(12일)	오징어볶음백반(₩1,300)	콩나물비빔밥(₩1,200)	참치김치찌개(₩1,400)	어묵김치국(₩2,300)	카레돈까스덮밥(₩2,700)
금(13일)	북어국밥(₩1,400)	소고기모듬야채덮밥(₩1,500)	소고기국밥(₩1,500)	갈치밤은국(₩2,300)	짜장면(₩2,000)

용인배움터

구분 / 요일	어문관			후복관		
	중식 1	중식2	분식	조·중식	석식	탕
월(9일)	미크덮밥(₩1,400)	갈비탕(₩1,800)	비빔졸면(₩1,400)	북어채무국(₩1,400)	호박고추장찌개(₩1,400)	쇠고기육개장(₩1,800)
화(10일)	참치김치찌개(₩1,400)	영양탕(₩1,800)	잔치우동(₩1,400)	우거지된장국(₩1,400)	쇠고기국(₩1,400)	닭도리탕(₩1,800)
수(11일)	카레덮밥(₩1,400)	육개장(₩1,800)	간짜장(₩1,400)	미역국(₩1,400)	배추된장국(₩1,400)	설렁탕(₩1,800)
목(12일)	제육볶음덮밥(₩1,400)	상추불고기비빔밥(₩1,400)	비빔국수(₩1,400)	감자고추장찌개(₩1,400)	콧고추된장찌개(₩1,400)	바지락순두부탕(₩1,800)
금(13일)	소고기전채볶밥(₩1,400)	사리곰탕(₩1,800)	바지락칼국수(₩1,400)	김치국(₩1,400)	무채어묵국(₩1,400)	동태매운탕(₩1,800)

주간일정표

	9일(월)	10일(화)	11일(수)	12일(목)	13일(금)	14일(토)
서울	규정심의위원회				행정학과 모의국무회의	
	수강신청 변경기간					
용인		모의면접	시월문학회 가을 시화전	물리학과 물리퀴즈대회		
		세민전 학술제			세민전 폐막식	

국립대발전계획(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립대 공공성 뺏기

대학서열화 · 등록금인상으로 몰락위기

국립대발전계획 반대의견 높아

지난 한학기 대학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립대 등록금인상에 이어 또 한번의 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바로 지난 7월말 발표된 국립대발전계획(안) 때문이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효율성 증진을 통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발전안이 아닌 국립대 구조조정안일 뿐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대학서열화를 국가정책적으로 부추기고 국립대마저 등록금 대폭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국립대발전계획(안) 철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국국공립대학 투쟁본부가 결성된 상태이고 국립대교수협의회(국교협)와 전국대학노동조합 또한 국립대발전계획(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발전 전망없는 국립대구조조정안

국립대발전계획(안)은 마련과정부터 졸속적, 비민주적으로 처리되었다. 43개 국립대의 미래를 좌우할 계획안을 3개월만에 수립했고 10월 정기국회시 확정,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또한 단 한번의 공청회가 있었을 뿐 보직교수들 사이의 밀실행정식 처리를 통해 추진되었고 계획안의 실시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 차등지원과 법규정비 등을 통해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대학서열화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국립대 기능분화라는 명목하에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특수목적대학, 실무교육중심대학으로 나누고 있으나 사실상 이는 서울대 등을 비롯한 지방거점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 하고 나머지 대학도 대학서열에 맞춰 분리해 경쟁력있는 몇몇 대학에 집중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소위 일류대라 칭하는 경쟁력있는 대학만 집중 지원, 육성하는 두뇌한국21(BK21)의 맥락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 많은 대학은 더욱 잠식되고 국립대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대학의 민주화 퇴보 또한 예상된다. 교육부는 책임운영기관화를 통해 공모로 선임된 총장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총장선출은 교육부내 총장후보선출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교육부장관과 경영계약을 맺은 후 교육부가 직접 총장능력을 평가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화투쟁으로 얻어낸 총장직선제 완전 폐지를 의미하며 교육부가 친정부인사를 배치해 국립대를 관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학내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인 대학평의회 또한 학생참여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고 교육부의 독단적 인사배치권한만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국립대등록금 대폭 인상될 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확대보장하고자 설립된 국립대의 취지조차 무시한채 신자유주의논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국가가 지원하고 있던 마지막 보루인 국립대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이 기초·보호학문으로 제한돼 그외의 분야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국립대특별회계법 도입으로 등록금자율결정제도가 확실시되면 대부분의 국립대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할 것은 뻔한 일이다. 결국 재정자립을 하지 못해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교육개방하에서 외국에 매각되는 대학도 늘어날 것이다.

교육전반문제 매우 심각

이처럼 국립대발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국립대발전계획(안)은 비단 국립대문제만으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곧 사립대 구조조정의 포석으로 제시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사립대등록금이 인하되어야 마땅할 시기에 오히려 국립대마저 등록금이 사립대수준으로 인상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결국 사립대 등록금인하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사립대는 국립대와의 경쟁으로 더 치열해진 시장경제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이로 인해 더 높은 등록금책정으로 학교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또한 경쟁에서 도퇴된 많은 대학이 외국자본에 팔려갈 것이고 이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외국의 철학과 문화가 도입돼 민족성에 있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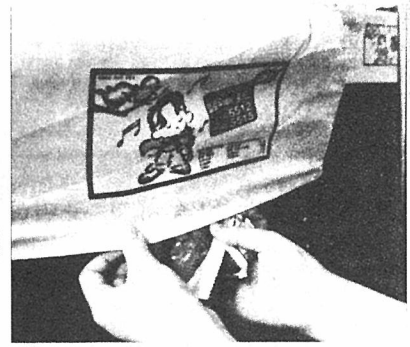
이는 국립대와 사립대로 나누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교육전반의 문제인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해야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국가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통일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재 국립대를 민족교육의 본보기로 잠려해야 하나 오히려 국립대마저 포기하려는 국립대발전계획(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해 교육을 상품화하고 자유경쟁에 맡기려는 현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시급히 재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전대기련공동기자단



슬~쩍

"학생들, 내일때 자기의 쓰레기는 갖고 내리세요"라는 버스 운전사 아저씨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부분의 용인배움터 학생들은 쓰레기를 의자 커버 속에나 창문 틀에 몰래 끼워넣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과연 쓰레기를 버리는 그물이 없어서일까? 사진부

서울배움터 전학대회 평가

대표자도 없는 전학대회

무산된 원인 충실히 논의되어야

지난 6일(목) 열린 서울배움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참가자들은 보고, 토론안건을 논의하기로 결의했지만, 활발하진 못했다.

이로 인해 1학기 전학대회에서 결의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한 외대발전추진위원장 선거가 다시 연기됐으며, 지난해 선거 무효과정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더욱 많은 대표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없게 됐다.

전체 재적대표의원 216명 가운데 미선출과 사고로 인해 참가하지 못한 대표자가 78명이나돼 회 체계가 잘 지켜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김동현(사회·행정 98)군은 "과 행사와 전학대회 날짜가 겹쳐서 대표자들이 많이 참석 못한 것도 있지만 갈수록 회 체계가 그 중요성에 비해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다. 대표자들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상반기 투쟁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총학생회장 김윤환(사회·신방 96)군은 내년에 관선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을 강조하고 "현재 총학생회는 국립화한 대학, 재단분규에서 벗어난 대학 등의 사례와 실태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장의 발언은 문예감래협의회 회장 함혜민(동양·일본어 96)양은 "현재 등록금 인상이 공공연히 얘기되고 있다"며 "총학생회는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김윤환(사회·신방 96)군은 "아직 준비가 잘 안됐다"고 답했다.

상반기 본관신축반대투쟁이 현재는 본관에 대한 계획과 재정 등을 총괄하는 '본관신축위원회'를 통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동아리연합회 이승주(사회·정외 97)군은 "본관 신축은 원칙적인 문제로서 해결해야 한다. 엘지 컨설팅 자료에 보면 앞으로 3년간 등록금을 매년 10%상승시켜도 407억의 돈이 적자가 된다"며 총학생회측의 확실한 입장과 행동을 촉구했다.

한편, 이어서 진행된 하반기 정세와 전망에서 부총학생회장 권영순(동양·인도 97)군은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주한미군철거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도 함께 벌여 나갈 것이다"며 이후의 투쟁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박수용 기자

사설

노벨평화상과 공안탄압

통일의 주력꾼인 노동자 탄압 중단해야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순안공항에서 서로 껴안던 장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빠르게 진행되는 통일열기에 반세기동안 얼어 있었던 분단의 빙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의 최고지도자들도 만나 회담을 하고 있으니 이제 그 빙벽도 곧 물이 되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로 되는 분위기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노벨평화상이라 함은 말 그대로 평화에 이바지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그러나 현재 김대중정권은 가진 것 없는 많은 이들에게 공안탄압을 가혹하게 가하고 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면 번지르르한 바가지로 바뀌는 경우도 생길 모양이다.

월곡동 밤나무 시장 쪽에는 뿌연 시멘트 가루를 날리며 강제철거를 하는 포크레인과 귀신이 나올 듯한 건물 한 채가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건물 옥상에는 귀신이 아니라 월곡 4동 상가공장 철거대책위주민들과 함께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학생들이 살고있다. 수십채의 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보려는 두산건설에 근 6개월간 대항하면서 말이다. 그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년 동안 상권을 유지해온 생업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어갈 수 있는 가수용 상가와 공사가 만료된 후에 입주할 임대상가를 보장받기 원하고 있다. 그러나 생존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월곡동 철거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투경찰의 곤봉과 용역깡패의 무지막지한 각목의 잔인한 세례일 뿐이다. 이런 공안탄압은 최근 6·15공동선언이 채택되면서 통일분위기가 고조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여름 노동자들의 얼굴에 땀과 분노의 눈물이 범벅이 되게 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롯데호텔 노조 탄압. 6월 29일 새벽 여성 400여명을 포함한 1천여명이 파업농성을 벌이던 호텔롯데에 테러진압 전문 일명 '솔개부대'를 앞세워 진압을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음주진압과 임신부 폭행, 여직원들에 대한 갖부들의 성희롱 등 과잉폭력진압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 스위스, 힐튼호텔 파업 현장에도 경찰이 투입돼 노동자들을 토끼몰이 해 한곳으로 몰아놓고 최루탄과 연막탄을 난사하는 등의 무력진압을 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권력야합에 있는 언론의 힘을 통해 '집단이기주의'를 부리는 노동자들에게 가한 공안탄압을 정당화했다. 롯데호텔 노동자들이 지난 해 3월부터 요구한 교섭에 한번도 나오지 않으며 회피하다가 단체협약의 일방중재신청조항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롯데호텔측. 이런 일방적인 중재신청을 무시하고 파업을 하면 '불법' 이라며 공권력을 투입하고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김대중 정부. 지난 사회보험노조 파업에서도 비슷하게 협상시간 11시간 중 몇시간이 흐르지도 않아 공권력을 신청한 사회보험측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군화발에 맞고 폭행을 당해야만 하는 노동자.

김대중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고 한반도를 하나로 통일하는데 함께 기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양복을 입고 금뱃지를 단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인가. 돈과 권력으로 잃그러져버린 대기업 혐태의 언론사 사장인가. 아니면 국민의 세금으로 경찰복과 군화, 곤봉을 갖고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보수세력들인가.

일한만큼의 댓가와 권리를 받고자 하는 소박한 노동자, 빈민, 농민들이 바로 이땅의 주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이제 김대중 정권은 통일분위기와 반비례로 공안탄압을 즉각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

21세기 필수직종 통역 · 번역사의 요람
통역번역대학원

장학금 수혜율 75%
8개언어 장단기 해외연수 혜택 국내 최고의 교수진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대학원은 1999년 통역 · 번역분야 교육부지정 두뇌한국(BK)21 특화사업단으로 더욱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중 70%의 학생이 BK장학금으로 학기당 240만원을 받고 또 별도로 5%의 재학생이 학교 성적장학금을 받습니다.
세계수준의 시설에서 우수한 전임 교수진의 BK사업으로 보강된 계약교수 14명 등이 최고의강의를 선보입니다.

2001학년도 입학전형일정

■ 모집학과(석사학위과정)
· 2개언어과정: 한영, 한불, 한독, 한노, 한서, 한중, 한일, 한아(8개학과)
· 3개언어과정: 한영불, 한영독, 한영노, 한영서, 한영중, 한영일, 한영아(7개학과)
· 특수언어협동과정: 한 · 마인어과(특수언어협동과정은 한 · 마인어과에 한하여 모집함)

■ 일반전형(특수언어협동과정 포함)
· 입학원서교부 및 접수: 2000. 10. 16(월)~10. 21(토)
· 1차시험(필답): 2000. 11. 4(토), 10:00
· 1차합격자 발표: 2000. 11. 10(금)
· 2차시험(필답 및 구술): 2000. 11. 11(토), 10:00부터
· 최종합격자 발표: 2000. 11. 17(금), 15:00

2000. 10. 10

통 역 번 역 대 학 원

모의면접 행사 안내

최근 신입사원 채용절차 중 면접은 취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주요 기업의 면접형태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는 필수적입니다. 이에 학생취업정보센터에서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면접에 대한 실전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형태의 면접방식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2000 모의면접'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취업준비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2000 모의면접' 행사일정 : 2000. 10. 17(화) 14:00~17:00, 대강당

2. 참가기업 및 면접관
1) 롯데그룹 (황두연 과장)
2) 아남전자 (조유호 부장)
3) (주)이도초심사 (이영숙 부장)
4) (주)엘리트코리아 (남경현 전무)

3. 면접유형 및 피면접자수
가. 개인면접 : 2명 (남녀 각 1명)
나. 집단면접 : 10명 (5인 1조, 2팀)
다. 집단토의면접 : 8명 (1팀)

2000. 10. 10

학생취업정보센터 소 장

2001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신청

1 신청자격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학생으로 2학년(3.4회 등록) 재학생(복학생포함)
2 신청기간 : ▶ 예비신청 → 2000. 5월 → 인터넷 신청 받음
▶ 본 신청 → 2000. 10. 16(월) ~ 10. 27(금)까지
3.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학교홈페이지→학사서비스→학부서비스→학사신청조회→교직이수신청
4 선 발 : 2001년·2월 중 해당대학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5 선발방법
교직과정이수 신청 학생수가 소속학과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선발한다.
(가) 2학년 2학기(조기 복학자는 3학기)까지 1개 과목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
(나) ㉮항이 동일한 경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총 평점평균 기준)
(다) ㉮,㉯항이 동일한 경우, 전공성적이 우수한 자.
(라) ㉮,㉯,㉰항이 동일한 경우, 학생의 인성 및 적성을 고려해 학과장이 선발한다.

6. 유의사항
(가). 교직과정 이수 신청하여 승인 받은 학생만이 교원자격증 취득자격이 부여 됨.
(나). 2001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을 위한 신청은 지난 5월(예비신청)점수 후 이번 신청(본신청)이 마지막 신청 기간이니 착오 없기 바람.

2000. 10. 10

사 범 대 학 장

공 고

2000학년도 제2학기 중간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

-아 래-

1. 시험기간:
2000. 10. 23(월)~ 10. 27(월)

2. 평가방법:
가. 시험시간표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담당교수 재량으로 실 시함.
나. 시험은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물 부과, 수업중 수시평가, 기타 객관적인 방법 등으로 평가함.

2000. 10. 10

교 무 처 장

외대사랑 외대발전
발전기금 ARS : 700-0202

홉산의 소리

글을 받습니다

자격 :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 제한 없음 / 매수 : 200자 원고지 4~5매 / 마감 :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투고방법 :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컴퓨터통신(하·나우 OEDAE, e-mail oedaepress@hanmail.net)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점을 애정어린 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홉산은 HUFS(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an의 준말입니다

외대학보를 읽고

단대별 기사량, 일정하도록해야

학보에 어문계열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은 것 같다. 공대, 자연대 기사들도 많이 실렸으면 한다.

이광재〈자연 · 환경 95〉

각 나라 문화 소개했으면

외대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곳이다. 그 특성을 살려 세계 각 나라의 문화를 심층적으로 소개하는 기획이 마련됐으면 한다.

오원근(동양 · 베트남 97)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마련해야…

얼마 전 외대학보를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학교 내부의 행사, 학교 발전 방향 보도에 대해 학보가 등한시하고 않은지,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자유 게시판이 없었다.

진정한 대학 신문을 추구한다면 외부의 비판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타 대학이 취업준비를 위한 특집기사와 학교 내 커리큘럼 변화에 대해 보도하는 것처럼 외대학보도 이러한 내용을 담았으면 .한다. 다시 한번 외대학보의 개혁을 담부한다.

이동훈〈동양 · 일본어〉

외부필자의 글 줄였으면…

'전대가련공동기자단' 기사는 줄여 주었으면 좋겠다. 학보가 기관지화 되어 버리는 느낌이다.

〈백지 대자보에서〉

알림

이번주 평수당은 본보 사정상 실지 못합니다
독자이러분의 양해바랍니다

외대학보

KBS는 즉각 삭제된 망언 방송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KBS는 지난 9월 21일 밤 10시 '일본 모리 총리에게 묻는다'라는 대담프로를 방영하면서 "우리나라(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 국제법상의 근거는 확실하며 그러므로 당연히 다케시마가 우리 영토라는 것에는 변함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라는 모리 총리의 발언을 삭제 · 방영했다.

KBS 측은 "이를 방영할 경우 국익에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독도를 한 · 일 분쟁지역으로 국제여론화시키는 것이 일본의 목적이니만큼 우리가 괜히 일본의 노골적인 트집잡기에 넘어가 그들의 망언에 일일이 반응을 하게 된다면 결과야 뻔한 게 아니겠는가. 우리 영토가 확실하므로 굳이 맞대응할 필요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억지를 쓰는 등의 기만적인 노력(?)으로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독도가 한 · 일간 영토 분쟁지로 인식되어 있다(이미 해외 다수의 세계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등해는 'SEA OF JAPAN'으로 표기되어 있음) 이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하에서조차 그들의 끝없는 망언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분쟁지화"라는 속셈에, 또한 그러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혹시 일본의 속셈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들게 할 뿐이다.

게다가 질문을 던진 KBS 기자는 분명 심수했다. 엄연한 우리 영토를 갖고 어느 나라 영토일 것이냐는 질문은 그 자체가 모순이고 질문구성에서조차 신중을 기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질문을 하더라도 정확한 전제가 세워진 상황에서 했어야 했거늘 독도에 대한 우리들의 영유권을 명시하지도 않은 채 그저 일방적인 일본의 입장만을 물었다는 것은 어떤 대답이 나왔을지 뻔하지 않았겠는가. 덕택에(?)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KBS간의 독도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 집안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KBS측이 주장하는 '국익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에서 과연 그 내용은 정확히 무엇이며 누가 그 내용을 판단했는지도 알고 싶다.

물론 실수를 할 수 있다. 허나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으며 KBS는 이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길 바란다. 삭제된 망언을 분명히 방영할 것이며 더불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당부한다.

너무나 오랜시간, 오욕의 역사로 얼룩져왔다. 분명히 독도가 우리들의 '실효적 지배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우 일본인들의 위협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눈먼 욕심과 왜곡된 역사에 대한 관적 몸부림이 그 첫째 근거이겠지만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자주적 관리조차 나몰라라 했던, 권력을 옆구리에 꿰차고 있는 한심한 이들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의 몫이 있다. 정부의 안일한 영토관리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정부에게도 묻고 싶다.

KBS는 물론이거니와 현 정부도 우리의 영토 주권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대한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독도연구회〉

안타까운 매향리 기사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지난 주 1면 중 가을 농활현장 매향리 기사를 보고 조금씩 잊고 지냈던 매향리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고자 글을 쓴다.

1951년 한국전쟁 중 처음 매향리에 사격장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미국 폭격기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한국 정부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매향리 앞 해안으로부터 1.6Km 정도 떨어진 바다 위의 농섬을 해상 표적으로 사격을 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특히 매향리 지역은 높은 산이 없는 구릉지대로서 안개 끼는 날이 거의 없고 해상 표적물과 육지 사격장이 근접하다는 이유로 아시아 지역에서도 최적 공군사격장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사격장으로 사용한 매향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피해 사례들이 속출했다.

1951년 미군의 사격 연습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오폭사고와 불발탄으로 인한 폭발사고 등이 종종 발생했으나 1989년과 1995년에 소액의 배상이 실시되었을 뿐이었다. 사격장 설치이후 오폭으로 인하여 생긴 사망자가 12명에 이르고 상해자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외에도 소음피해. 사격장 조성을 하느라 황금어장과 경지 및 임야를 헐값에 징벌 담함으로써 입은 경제적 손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피해이다. 게다가 이번에 학보에 나온 것처럼 인근 화력발전소의 폭발 위험까지 있다니 이젠 정말 '전면폐쇄' 등의 말들이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다가오는 것 같다.

매향리에서 미군의 폭격이 계속되는 한 '안전지대'는 말로만 안전지대이지 실제로는 '위험지대'인 것이다. 지난 8월 18일 국방부는 '육상 사격에서의 기총 사격 훈련을 중지하겠다'는 주제의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로써 매향리 문제는 해결되게 되었다"고 국민 여론에 발표했다.

그러나 오늘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오폭사고는 국방부의 '종합 대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사격장에서의 기총 사격 중지만으로는 매향리 주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절대로 해결 될 수 없다. 매향리 주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격장에서의 폭격인 것이다.

두말 할 나위 없이 매향리 주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향리 사격장은 즉각 전면 폐쇄되어야 한다.

이제 너무나 많이 거론돼 정말 말버릇처럼 되뇌이게 되는 '매향리 사격장 폐쇄'..

학보에서도, 일반 신문에서도 제발 매향리에 대한 안타까운 기사들이 없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김태연〈서유럽 · 불어 00〉

국군포로, 정치적으로 악용해선 안돼

남북 정상이 역사적 만남을 가진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이 차근차근 이행되는 과정속에서 비야호로 통일조국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위시한 몇몇 수구, 보수 세력들은 남북 상호주의 원칙을 들먹이며 '국군포로가 송환되지도 않았는데 장기수를 송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인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민족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상호주의'를 들먹이는 논리 자체부터가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안고 있지만, 백번 양보해 그들이 말하는 상호주의 원칙에서 살펴보더라도 장기수 송환 문제는 국군포로나 납북자가 아니라 북파간첩의 문제와 맞물린다. 또한 국군포로의 상대는 인민군포로이고 납북자의 상대는 납남자이다. 나아가 전쟁포로 문제는 미국이 스스로 조인하고 비준한 1949년의 제네바 협정 11조(전쟁이 끝나면 전쟁포로는 지체없이 석방되고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를 두 달만에 미국 스스로 뒤집으며 위반한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미국이 내세웠던 '자유송환'은 포로들에게 송환의 선택 기회를 준다는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채 '강제억류'의 역할을 했었다. 포로들은 적국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포로들에게 폭력, 고문, 협박 등이 자행됐었는데, 거제도 포로수용소장이었던 도드 준장이 포로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북 포로들에 대한 미국과 이남 정권의 잔학 행위, 강제심사 등의 사실이 세계적인 비판여론으로 모아지기도 했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에 의해 3, 40년간의 감옥생활과 온갖 고문이 자행되는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던 장기수들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아도 송환되었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은 이제 공론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반통일 세력들의 준동을 우리는 명확히 보아야 할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의 한일투쟁을 통해 해방의 역사가 펼쳐지던 날, 그러나 그 전날까지도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빌붙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반민족적인 행각이 역사속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또한 지명한 사실이다. 이제 통일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며 잣대이다. 애국의 길을 저버리고 온 민족의 통일 대행진에 딴지를 걸려는 반통일 세력들은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 해보아야 할 것이다.

김겸신
〈자연 · 화학 97, 언론협의회 의장〉

결과, 과정 무엇이 중요한가…

지난 주 학보에 실린 '올림픽에서 본 방송시의 부족함'의 글에 덧붙여 '국민들의 부족함, 선수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적어 보려 한다.

전 세계를 들끓게 했던 올림픽!

10위권내 진입이라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2위라는 성적을 거두고 우리 선수단은 돌아 왔다.

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선수들 중 진정으로 기뻐던 이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원하며 또 그 일을 하려 할 때, 물론 늘 그 일을 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해 내는 과정에서의 또 다른 배움, 인내의 얻음으로 만족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 나의 실패에 대해 논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리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는데 실패라고 이야기한다면, 실패한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각 국에서 내노라하는 선수들의 시합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

그 선수 한 사람에게도 영광이지만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렇지만 그 나라의 영광이 과연 한 사람의 노력의 성과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 만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은메달을 딴 선수들 중 기뻐하지 않는 선수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 한국선수라는 이야기가 있다.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 모두 아니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라 할지라도 그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선수들만이 금메달이 아닌 것에 슬퍼해야 하는 것인지 신문기사를 봐도 뉴스를 보아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금메달이라는 것에, 1등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의 우리 사회도 이런 금메달주의(?)를 낳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은메달과 동메달이 실패라면, 만약 그것을 실패로 본다면 오히려 더 다독거려 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다음 기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인가?

아직 기회가 있음을 잊지 않도록. 다시 도전할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진정 실패자가 패배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줘야 하고, 그들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한 그들의 노력, 그것을 모두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정미〈서유럽 · 불어 00〉

교실붕괴에 교사들도 지쳤나…

-건설업자

현실을 직시하자. 우린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분통 터지는 사람

장시간 수업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 시달리는 아이들이 주 5일 수업을 더욱 더 적극 지지한다는데..

- 시달리는 학생

백지 대자보

주제: 장시간 수업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주 5일 수업을 크게 지지하고 있다는데..

좀 더 질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면.. 양보단 질을 추구하자.

- 양질전환의 법칙

교사도 교실붕괴로 인해 압박감을 느낀다.

-교사

우리나라의 부모들의 교육열을 감안하면 주 5일 수업은 힘들지 않을까?...

- 치마 바람

그러면 토요일날 엄마가 고생한다.

- 학부모회

외국어시험대비반

· 모집기간 : 10월16일~ 11월1일 ·

■이른 아침반
11월 6일~ 12월15일(6주, 주 5일 월,화,수,목,금)

과목 / 시간	TOEIC 김영신	TOEFL(기본) 김지은
8시 ~ 8시50분	"교재 :Power TOEIC"	"Introductory course of TOEFL Test"

■야간 정규반

과목 / 시간	TOEIC 종합 Advanced David 최	TOEFL 종합 Advanced Maryanne 한	일본어능력시험 / JPT 김혁희,김현주	H.S.K대비반 (漢語水平考試)김윤태 김현주,이익희	홍순우	Nancy 최
6시~ 7시50분	"Power TOEIC"	"만석 Toefl 21 CYBER 강의" (C.B.T대비)	1,2급대비반 지체교재	청해/문법 /독해 지체교재	심전TOEIC "Longman Preparation series for the TOEIC Test" -Advanced Test-	Essay 및 TWE CBT영작 (90분 주3일 강의)

※ 체계적인 강의와 수강생 개개인의 시험점수 관리를 통해 만족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수강료 (6주과정)
아침반(TOEIC/TOEFL):120,000원 (재수강생,외대생 110,000)
야 간 반: 180,000원(재수강,외대생 160,000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Best friend for your unique dream-

2001학년도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 00명
2.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졸업자('01.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임관월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까지의 남자('74. 10. 1 ~ '81. 9. 30사이)
· 군 인사법 제10조 징고임용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선발요소 / 배점

구 분	계	수능성적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	신원/신원조회
배점(점)	100	20	20	30	30	관련(참/불)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00. 10. 2 ~ 10. 28
·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수 량	배 부 장 소	비 고
지원서 (학군교 소정양식)	1부	학군단 행정실	
대학 전학년 성적 증명서	1부	지원자 준비	
수능 성적 증명서	1부	학군단 일괄제리	
신원진술서(서장식)	1부	학군단 행정실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지원자 준비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부 사람시 제적등본 제출)	각 1부 (1부)	지원자 준비	
최연석 사진(4×5cm)	4매	지원자 준비	

※ 면접 가산점 부여자 확인증명 서류
· 국가유공자 직계가족 : 유공자 증명서(보훈처 발행)
· 무도 유단자 / 국위 선양자 : 무단 2도이상, 전국대회 입상증명서
· 장기근속 직계가족 : 20년이상 근속(현역 / 예비역, 군무원, 국가 공무원)
· 리더십 우수자 : 학생회 간부, 동아리 활동장(대학 지정급 이상 발행 증명서)

5. 문의사항
· 전 화 : 서울 (02) 961 4411, 4412, 용인 (0201) 330 4149
· 우편처 : WWW.MANOC.HUFS.AC.KR/~ROTC

경 영 정 보 대 학 원

본 대학원은 동양 최초의 경영정보(MIS) 분야의 경영정보학, 소프트웨어공학 등의 첨단학문발전에 개척자 구실을 하고 있는 유일한 주간 대학원입니다.

1. 모집과정, 학과 및 인원

과 정	학 과	전 공	인원
경영학석사	경영정보학과	MIS	00명
		재무 · 회계	00명
		운영관리	00명
		조직 · 인사	00명
		마케팅	00명
이학석사	응용전산학과	소프트웨어공학	00명

2. 지원자격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및 2001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타 분야를 전공한 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다. 특별전형 지원자는 대학의 전학년 평점평균이 8o이상인 자

3. 제출서류
가. 입학지원서(소정서식, 사진4매 -4cmx5cm)1부.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통.
※ 졸업증명서는 교육부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된 것.
※ 전학년 평균평점은 100분을 환산한 점수도 기재해야야 함.
다. 입학후의 학업계획서(입학지원서 후면 서식란에 기재)
라. 교수추천서(본대학원의 소정의 서식)

4.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
나. 특전 : TOEFL(600점이상)이나 TOEIC(850점이상)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함(단,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함)

5. 전형일정
가. 원 서 교 부 : 2000년 10월 4일(수) ~ 10월13일(금)
나. 원 서 접 수 : 2000년 10월 6일(월) ~ 10월13일(금)
다. 시 험 일 시 : 2000년 10월20(금) 오전 10시
라. 시 험 장 소 : 시험당일 본 대학원 교학부에 게시함.
마. 합 격 자 발 표 : 2000년 10월27(금) 오후3시이후

6.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토요일은 휴무로 지원서 접수를 하지 않음(원칙은 오후5시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부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교학부 : 965-7046, 961-4119 구내(4119)
→ 경영정보대학원 Homepage → http://gsmis.hufs.ac.kr

경 영 정 보 대 학 원

기고글 - 독일통일 10주년을 재조명하며 우리나라 통일의 상을 그려본다

독일통일 … 그 속에서 희망찾기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은 반세기 가까이 지배하던 분단과 대결, 대립과 증오의 냉전 이데올로기에 종언을 고하고 역사적인 통일을 선언하였다. 통일독일은 전 세계에, 특히나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을 주기도 하였지만, 그만큼의 큰 교훈을 주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에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중심으로 분단과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단결로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독일 통일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독일 통일의 배경과 조건,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속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취함과 버림을 판단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 대장정을 그려보도록 하자.

편집자

위는 독일 통일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베를린장벽이 있었던 곳에 모인 독일인들의 모습이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얄타협정으로 전승 4개국, 즉 미국 영국 불란서 소련에 의해 분할·점령된다. 원래는 전승 4개국이 일정 기간의 군사점령 후 독일과 평화조약을 체결해 독일은 계속 통일국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동서독은 1949년 동서진영 간의 냉전으로 분할되어 1990년까지 분단상태로 있게 되었다. 이러한 독일이 45년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독의 막강한 경제력과 정치적 안정이 있었다. 또한, 서독 집권층의 막강한 정치·외교 역량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주요한 배경은 소련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동독에 대한 영향력 약화와 동독 사회주의의 몰락이었다.

서독은 1960년대부터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동독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원조와 함께 동독의 민주화를 유도하였다. 서독은 또한 소련과의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소련의 동독에 대한 간섭 중지와 독일통일의 자결권을 얻어냈다. 이와 함께 동독내 민주개혁으로 인한 동독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지향과 서독 체제에 대한 동경이 통일열기로 발전되어 갔다. 1989년 말부터 독일통일은 급가속의 길을 달렸고, 1989년 11월 28일 서독은 조기통일 정책을 추진하게되었다. 통일을 위한 1차 조약(1990. 5. 18.)으로 동독과 서독은 화폐, 경제, 사회 통합을 시작했고, 2차 조약인 통일조약(1990. 8. 31.)으로 동독과 서독은 통합에 이르렀다.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전 세계에 통일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의 통일 과정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우선, 통일방식에서의 문제점이다. 서독의 기본법은 상이한 두 가지의 통일방법을 담고 있었다. 제 23조는 '기본법이 우선적으로만 서독지역에 유효하고 독일의 타 부분에서는 편입이후에 발효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독의 서독 편입의 길을 열어 놓았고, 제 146조는 '기본법은 독일 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헌법이 발효되는 날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양 독일 국민이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하나의 의회를 구성하고 이 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 다음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23조에 따르면 조기통일은 가능하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동독지역에서의 기업 도산, 실업자 증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불안 유발 가능성과 서독지역에서의 답세 증가와 노동, 자본시장의 혼란 가능성이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146조에 따르면 양 독일이 통일정부를 수립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합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긴 하나 통일 이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독일은 "이러한 상이한 방법을 조화시키지 못하고 급속한 통일 실현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킨 것이다.

둘째, 여러 분야의 정치 통합에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정당통합의 경우를 보면, 동독의 민주화 개혁 이후 다양한 정당과 정치세력들이 형성, 발전됨으로써 이들은 이념적으로 유사한 서독의 정당들과 연합이나 통합을 하게 된다. 통일 이전의 양 독일 정당간의 제휴나 통합이 동서독의 제도적 정치 통합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양 독일의 통합은 엄격한 의미에서 대등한 통합이 아니라 서독 정당들이 자체의 당 조직과 행동반경을 동독 지역으로 확대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또한, 군·행정·사법기관 통합의 경우를 보면, 동서독의 정치체제 통합은 서독의 정치체제가 동독지역으로 확대되고 구 동독 체제가 해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선은 사유화 과정상의 문제점과 경제적 부작용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신탁청 조직운영상의 비효율성, 소극적 경영정상화 정책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 동독지역 미해결 재산권에 의한 투자지해, 시장질서 정책상 오류에 따른 독점강화 등의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또한, 국가부채의 증대와 금리상승의 문제점이다. 통일관련 재원조달로 인해 공공부문의 채무 순증가액이 세금증수액을 앞질렀다. 공공재정의 자금수요가 급증하자 금리수준이 인상되었고 금리수준의 인상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억제하고 국가채무의 금리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작용을 한 것이다. 그리고, 세금인상과 소득분배의 악화의 문제점 또한 있었다. 독일정부는 증가하는 통일재원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하자 세금인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런데 독일정부는 직접세, 간접세, 사회보장 부담금 및 공과금의 인상을 통하여 주로 가계,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로부터 통일비용을 조달했기 때문에 독일정부의 통일재원 조달정책은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소득 역분배 기능을 하였다.

넷째,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다. 가장 큰 것은 실업문제이다. 독일통일 이후 동독의 계획경제 체제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많은 동독기업이 경쟁력 약화로 인해 도산하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양산되어 실업문제는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사회보장문제가 나타났다. 통일 후 동독지역의 물가수준은 거의 서독수준으로 급등하였으나 사회보장 수준은 서독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서간의 이질화문제 또한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독일 통일의 과정과 문제점 속에서 민족화해와 대단결의 힘으로 자주통일로 가는 우리 민족이 취해야 할 교훈은 뚜렷하다.

우선은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흡수하는 식의 통일은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흡수통일은 흡수되는 쪽의 붕괴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에 흡수되는 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흡수하는 쪽 또한 심각한 부작용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나 한반도의 남녘과 서독은 결코 같지 않으며, 한반도의 북녘 또한 결코 동독과 같지 않다. 한반도에서의 흡수통일은 필연적으로 무력을 동반하게 되거나 흡수통일의 노력은 분단 영구화로 가게되는 것이다. 하기에 우리 민족의 통일은 남과 북 서로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는 대등한 연방제 통일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통일은 외부의 배경과 힘에 의해서가 아닌 민족 스스로의 자주적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 한반도가 둘로 나뉘게 된 배경은 민족의 의사가 아닌 참여하게 대립된 외세의 패권과 이권에 의해서였다. 뿐만 아니라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 또한 그 원인과 배경 심지어 정전까지도 민족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후 분단 반세기의 대립과긴장 또한 민족내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처럼 그 시작에서 반세기 동안 이어온 분단의 연속은 민족 스스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주적 원칙이 모자랐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을 끝장내고 민족 최대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세에 의한 간섭과 방해를 물리치고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실천시켜 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셋째, 통일의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민간통일운동 역량이 부단히 강화되어야 한다. 즉, 전 민족의 힘으로만이 완전한 통일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러할 때만이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일치한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뿐더러 분열세력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압도하여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민족대단결의 힘이 통일의 근거와 배경이 되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남북화해와 민족대단결이 본격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정상이 역사적인 상봉을 이루고, 민족자주 선언이자 민족대단결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면서 대립과 반목으로 서로를 적대시하던 남과 북은 화해와 단결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군사당국자회담, 김용순 특사의 서울 방문에 이어 북측의 초청에 의한 남측 정부·정당·사회단체의 방북 또한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바야흐로 한반도에 평화의 꽃이 피고,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결실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민족은 전 세계 유래 없는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다그쳐 본격적으로 하나되기 위한 작업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온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고 실천해온 자주적 평화통일로 전 세계에 위대한 우리 민족의 아름다움과 힘을 과시해야 할 것이다.

강형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외협력부장〉

로키움

인도인들의 더불어 살기

'지역사회'라는 개념에 대하여 우리는 흔히 단일한 문화의 생활공동체를 연상한다. 그러나 지역이라는 뜻의 인도 어휘 끄셰뜨라(kshetra)는 우리의 지역에 대한 개념에 비해 폭넓고 상이한 여러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끄셰뜨라는 문화적으로 단일한 동질의 지역이라는 개념보다는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단일체라는 정서를 부여하여 현실적 공동체의 개념을 참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양국에 걸쳐 자리잡고 있는 빤잡문화지역은 끄셰뜨라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지역은 파키스탄의 동부지역에서 동으로 인도의 델리인접지역까지 그리고 인도 북부의 잠무 계곡에서 남으로 라자스탄주의 북부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포함하며 일억여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갖는 문화 의식은 여러 개의 이질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슬람교, 시크교, 힌두교 등의 여러 종교와 빤자비어, 힌디어, 우르두어, 도그리어 등의 여러 언어, 그리고 룸따니, 구자르, 자트, 등 수백여 공동체들이 오랜 세월 접해 살면서 공통된 문화적 정서를 유지해 왔다. 이들이 갖는 문화적 복합성은 풍부한 빤자비어 문학, 즉 구루무키문자로 쓰여진 시크교 경전, 아랍문자와 데브나그리 문자로 쓰여진 수피 시 등에 반영되어 있으며 기타 민속 유산과 예술, 무용, 그리고 노래 등에도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언어와 종교를 배경으로 부각되었고 이 지역에도 배타적 정체성을 목표로 하는 단일 언어와 문자의 사용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따라 지역의 중심 언어인 빤자비어와 시크교도들의 문자인 구루무키 문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 작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빤자비어를 사용하는 힌두들은 힌디어 표기 문자인 데브나그리 문자를 사용하며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들은 빤자비어를 아랍-페르시아 문자로 표기하는데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단일한 언어에 대하여 이처럼 세 가지의 다른 문자가 사용되는 것이 상보적인 것으로 인정됨으로써 이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는 독특한 공동의 지역 문화적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

복합적인 인도사회의 여러 정체성과 다양한 언어의 사용이 포면적으로는 많은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속의 사람들은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의 유산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공통된 사고 방식을 갖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을 발전시켜왔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성들은 인도사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면서 개별적인 것들을 융화시키는 상위범주를 형성하여 왔다. 더불어 사는데 익숙한 인도인들이다.

최종찬

〈인도어과 부교수〉

국제단신

프라하, 세계반대투쟁… 서울 아셈으로 이어질지 주목

지난 9월 26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린 프라하에서 약 1만여명이 고리대금업자인 IMF가 수십년 동안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돈을 가난한 국가에서 빼앗았다고 강조하며 항위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그들은 1980년부터 1992년까지 빈국들은 외채원금보다 3배나 많은 액수를 갚아야 한다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 날 세계은행 제입스 울핀스 총재등 각국 대표단이 시위 도중 건물 안에 갇히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9월 중순, 세계경제인포럼(WEF)이 열린 호주 멜버른에서도 비슷한 시위양상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아시아 10개국과 유럽 15개국의 정상과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참석하는 서울 아셈(10월 20~21일)에서도 국제적 세계화 반대투쟁이 진행될 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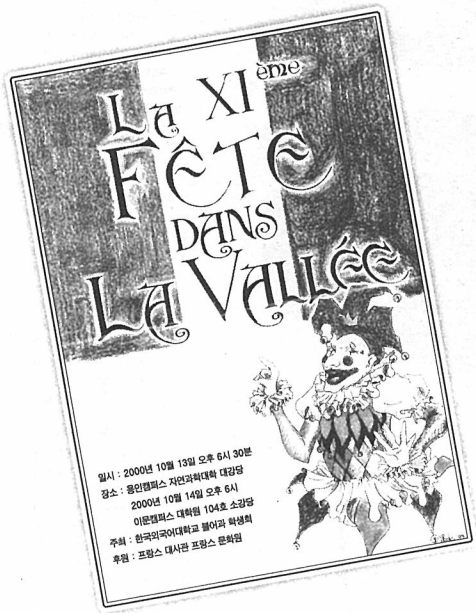
필리핀, 미군기지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 첫 공판 실시

필리핀 인근 수빅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를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에 관한 첫 공판이 지난 9월 28일 오전 9시에 필리핀 팜판가(Pampanga) 지방재판장에서 진행됐다. 1991년 이후 미군기지 내에서 2년에서부터 5년 정도 거주하면서 과거 미군기지에서 폐기처분한 각종 환경오염에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희귀병에 걸렸을 때 어머니들은 선천적인 병이기에 그저 자신의 탓만 하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지국 국민들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필리핀 정부를 대상으로 520억페소(약 20억원)의 손배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환경오염의 진짜 주범인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올해 말에 시작할 국제 재판에서는 1020억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여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불어과 축제보러 가자



제10회 영국 유학|연수 박람회

EDUCATION UK EXHIBITION 2000

The British Council

우리는 10월에 영국 간다! 주한영국문화원은 영국유학의 가장 중요한 관문중의 하나인 제 10회 영국유학/연수 박람회를 서울과 대구에서 개최합니다.

영국 유학연수 박람회는?

- ▶ 국내유일의 대규모 영국유학/연수 박람회로서 영국 정부 기관인 주한 영국문화원이 개최합니다.
- ▶ 58개의 유수한 영국 대학교, 직업교육칼리지, 중등학교 및 영어연수학교 등이 참가합니다.
- ▶ 영국에서 파견된 각 교육기관의 대표자들로부터 영국 유학에 관한 살아있는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료입장/풍역권 상주/안내책자 증정/서울-런던 왕복 항공권 및 행운권 추첨

서울 박람회 (58개교 참가) **10월 28일(토)~29일(일)** / 낮12시~오후6시 /
조선호텔(소공동) 1층 그랜드볼룸

대구 박람회 (31개교 참가) **10월 30일(월)** / 오후2시~오후7시 /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도서관 로비

주최 주한영국문화원 / **후원** 주한영국대사관, 영국항공(British Airways), 계명대학교

문의 주한영국문화원 영국유학센터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1-21 중부빌딩 (100-101)
TEL: (02)3702-0691~3
http://www.bckorea.or.kr / E-mail:ukstudy@britishcouncil.or.kr

영국생활 체험수기 공모 | 주한영국문화원은 올해로 제10회를 맞이 하는 영국유학/연수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이 영국생활 및 여행 수기를 공모를 합니다.

주제 영국(유학)생활, 여행소감 **상품** 1등 1명 주한영국문화원 이학센터 수강증 (2학기) + 부상
대상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2등 3명 주한영국문화원 이학센터 수강증 (1학기) + 부상
분량 A4 2-4 장 (국문) 3등 3명 부상
마감 2000년 11월 24일 (토) **문의** www.bckorea.or.kr 또는 전화 (02) 3702-0611
제출처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21 주한영국문화원 유선아 (우편접수)

EDUCATION the best you can be

*The British Council is the United Kingdom's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educational and cultural relations. Registered in England as a charity.

통일행 기차 어디까지 왔나?

11만 관중의 박수갈채 우리 가슴은 보다 뜨거웠다

남북한이 올림픽 사상 최초로 단일기 아래 동시 입장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한민족의 하나됨을 염원하는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가 그려진 '단일기'을 앞세우고 남북한 선수들이 입장하는 순간, '시드니의 작은 통일'이 이뤄졌음을 느끼며 조금은 감상적이 되었날 법하다. 또 시드니 올림픽 스타디움에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입장 했을때 11만 관중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한반도 분단 아픔의 뭉클함을 함께 했다.

우리민족에게 남북한 올림픽개막식 동시입장은 통일 실현의 가능성을 내보인 희망의 근거였다. 북측의 스포츠 한 관계자는 "스포츠 교류도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며 민족자존의 때가 됐다"며 "'회진비래'라는 말이 있지만 이제는 '비진희래' 슬픔이 다해 기쁨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남북한 동시입장은 한민족이 화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단의 아픔을 쓸어내리고 환희로 채워지는 역사적인 일번로이다.

반백년을 기다려온 만남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한반도 전역은 눈물과 감동의 연속이었다.

잠시만 떨어져 있으면 다시 만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반세기가 흘렀다. 그간 세월 동안 피붙이와 생이별하고 눈물로 베갯잇을 적신 분단이 낳은 희생자 이산가족, 그들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안아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남과 북에서 각각성사됐다.

백발이 된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 남북 두 모자의 앰블런스 극적 상봉, 병중 어머니와 '전화상봉',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라며 큰절을 올리는 아들, 혈의 반인남이라는 비보를 접하고 통곡을 하는 동생… 슬픔과 회한,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한반도를 적셨고 또 생시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이 가슴 저리게 하는 순간이었다.

'경의선'은 94년 창간된 주간신문이다. 경의선 철도에 얽힌 여러 내용들을 1년반동안 소개해오다 재정적자로 휴간됐다. 하지만 경의선 철도가 남북교류의 혈맥으로 새롭게 부각될 것이 예상되면서 신문의 복간이 이루어졌다.

또 경의선 주변 파주시 '통일촌' 주민들은 "어린 시절 타 본 경의선은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라며 "복원된 경의선을 타고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마음껏 오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실향민들이야말로 경의선 철도가 복원되면 기차를 타고 북한을 다녀올 수 있다는 벅찬 감격에 차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던 경의선 복원. 지난 반세기 동안 끊겨졌던 경의선 철도는 분단과 냉전의 상징으로, 둘로 갈라진 우리 민족의 비원이 서린 곳이다.

그러나 끊겼던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잇는 작업, 경의선 복원 착공식이 지난 9월 18일 열렸다. 통일로 가는 열차, 철마라고 불리우는 경의선은 문산~장단역 사이 12km 구간의 철도 연결공사와 통일대교~장단역 사이 6km 구간의 완복 4차선 도로공사도 진행돼 내년 9월초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특히 24만평 규모의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작업을 위해 남북한 군인들은 공동으로 작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경의선 복원과 함께 이루어지는 지뢰제거작업은 동족상잔의 상흔을 지우고 지뢰가 사라진 그 자리에 신뢰의 싹이 돋아나고 그 신뢰의 싹은 장차 평화통일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철마야, 통일을 향해 굳세게 달려라

푸른 절개 간직한 비전향 장기수, 심장에 남으리라

"감옥에 있을 때나 나와 있을 때나 도와 준 남녘 동포들에게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통일된 조국에서 곧 다시 만납시다"

비전향장기수들과 가족, 지인들은 송환장기수들의 북송을 앞두고 이별의 슬픔을 새로운 만남의 기약으로 서로를 달랬다. 그러면서 그들은 '비전향장기수들이 가는 길이 통일의 첫걸음'이라고 굳게 믿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머리 속에 그려본다.

지난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북송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잘해서 가는 것인만큼 죽을 때까지 우리민족이 힘을 합해 통일 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한 비전향장기수의 말처럼 6·15 남북공동선언 중 '남과북은 올해 8·15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라고 했다'는 3항을 철저히 이행한 측면이다.

그 동안 정부당국은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사상전향을 강요하며 비인도적으로 인권탄압했다. 그러나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온 겨레가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분단과 이념의 상징인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함으로써 그 벽을 허물어 버린 것이다.

'분단지향'에서 '통일지향'으로

통일의 새지평이 열렸다.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는 8·15 행사가 남, 북, 해외 동포와 정부, 정당, 사회단체 참가 아래에 진행됐다. 6·15 공동선언의 의의에 맞게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번 통일대축전은 그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치러졌다.

분단 55년을 맞는 올해를 통일의 원년으로 삼고 남, 북, 해외동포 등 7천만 겨레 모두의 염원을 담은 이번 행사는 그 동안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굽힘없이 펼쳐져 온 남북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장이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7천만 겨레의 통일염원과 투쟁의 결과라는 것과 통일의 민족사적 물줄기를 되돌릴 수도 늦출 수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통일이 구체적으로 완성되는 날이 언제인지 선언할 수는 없으나 55년에 걸친 분단사에 종지부를 찍고 이번 행사를 기해서 우리 역사가 '분단지향'에서 '통일지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후 변화

8월 25일 : 6·25 행사 남북이 축소 및 폐기, 휴전선 근방에서 북의 대남 방송 중지.

8월 27일~30일 : 남북적십자 회담(금강산), 이산가족 상호방문 및 면회소 설치, 비전향장기수 송환 협의

7월 26일 : 남북 외무장관회담(태국), 대외관계와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조하기로 발표.

7월 29일~31일 : 1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 경의선 복원, 남북 공동선언을 지지 환영하는 8·15 행사 개최, 총련 동포의 고향 방문, 2차 장관급회담 일정 발표.

8월 5일~12일 : 남측 언론사 대표단 북측 방문, 공동선언이행과 통일언론 실천, 언론교류 추진 내용의 남북언론기관공동합의문 발표.

8월 13일~18일 : 남북 당국이 민족화해주간 선포

8월 15일 :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남북공동선언을지지 환영하는 8·15일 행사를 남, 북, 해외동포와 정부, 정당, 사회단체 참가아래 진행.

8월 15~18일 : 남북 이산가족 상봉

8월 29일~9월 1일 : 2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이산가족 교환사업, 서신 교환 추진,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갖도록 협의,경의선 연결과 문산-개성도로 연결, 임진강수해 방지 사업 추진 협의, 100명 규모의 백두-한라 관광단 9월 및 10월초에 상호 교환

9월 2일 : 남측 비전향장기수 63명 북측으로 송환.

9월 12일~14일 : 조선노동당 김용순 비서 일행이 남측을 방문 제주, 경주, 포항제철을 돌러보고 14일 김대중 대통령 면담.

9월 14일 :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 방문,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간 회담 개최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확명, 이산가족 생사와 주소 확인 시작으로 2차례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 교환, 면회소 설치 문제를 협의, 남북경협을 위한 실무접촉 협의,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기공식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 북측에서 15명 정도 경제 시찰단을 10월중에 남측으로 파견, 임진강 유역 방재 사업을 위해 금년내 조사 사업 및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등을 발표.

9월 15일 : 시드니 올림픽에서 아리랑 연주에 맞춰 단일기를 앞세우고 동시입장. 국제적 환영을 받음.

9월 18일 : 남측에서 경의선 착공식을 각계 10000명 참가 속에 진행.

9월 20일 : 남북적십자회담 진행(금강산), 이산가족 신청자 100명의 9월, 10월 각각 시범 교환을 통한 생사확인 등 모두 67항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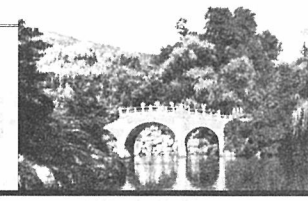
9월 25일~26일 : 남북국방장관회담, 경의선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또 남북철도와 도로공사를 착수한 비무장지대에 인원과 차량, 기재 반입 허가,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개방해 정전협정 기초한 관할지역 설정. 제1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남북교류 기업의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과 대북식량지원도 합의.

9월 27일 :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제주도), 재미동포 비롯, 모든 해외 동포의 남북 고향방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양측의 협력방안 모색, 또 학술, 문화 교류의 지속적인 확대차원에서 교수, 대학생, 문화계 인사로 구성된 방문단 상호 시범 교환합의, 내년 8·15부터 서울, 평양 원래 친선축구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함.

9월 30일 : 남북 생사확인 의뢰명단 100명식 교환, 이산가족 e-메일 교환 제안.

10월 초 : 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경의선 철도 복원과 개성-문산 도로공사를 위한 비무장지대 인원, 차량, 기재 반입과 관련한 실무협의

10월 5일 : 남북경협실무접촉에서 합의 발효한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대북 식량차관 50만톤의 첫 선적분인 20만톤의 식량이 북측에 전달



통일이 오는 나라
사람의 환대가 끊어지면서
그 생명도 죽음을 맞이했던 통일교
그러나 이제는 산맥과 강처럼 지유로운 생명을 품고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이어가리라.

우리도 북녘의 벗들을 만나러 간다

"북녘의 청사진, 우리가 알리렵니다"

얼마전 남측언론사 대표들이 북측을 방문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우리학교 학생기자들이 북녘땅을 밟는다면 어떨까? 통일이 무르익어가는 지금, 정부·정당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순수한 교류도 밑받침 되어야 한다며 우리학교 5개 언론사 기자들의 방북취재를 준비하고 있는 김겸신 양을 만나보았다.

요즘 김양은 방북취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보사, 아거스, 교지, 양해움터 방송국 등 5개 언론사를 뛰어다니며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언론사 구성원들과 '북한에 가면 무엇을 할까?'라는 기대어린 대화를 한다고 한다. "언론사 구성원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나요? 우리학교 학생들이 평양외대에 대해, 그리고 북한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궁금해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기자들의 몫이죠"라며 "이번달 안으로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학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 취합해서 기자들이 어떤 것을 취재할 것인가를 결정할 거예요. 대충 생각하고 있는 건 평양외대 학생들의 생활, 동아리 활동, 평양외대의 교육과정 소개 등을 잡고 있어요. 설문조사를 하고 나면 더 풍부해 질 겁니다"라며 방북취재의 밑바탕에는 학생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언론의 역할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 방북취재를 하게 되면 언론사 구성원들을 위해 학보사나 아거스는 '노동신문사'를, 방송국은 '조선중앙통신사'를 견학하면서 북한의 중앙언론사와의 교류도 계획하고 있다.

진정한 방북취재의 첫 발자욱을 찍고 싶다는 김양은 방북취재의 의미에 대해 "언론도 통일의 길에 원동력이 되어야 해요. 언론협의회의 특성을 살린다면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주교류의 일환으로 방북취재를 생각했죠"라며 1989년 우리학교 출신인 임수경선배가 방북을 하면서 통일의 길을 닦아 놨다면 지금은 우리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언론가 남북간의 이질감을 동질감으로, 적대감으로 동포애로 바꾸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며 방북취재의 뜻을 담았다.

방북취재사업은 오는 28일(토) 2하기 언협정기총회 때 방북취재 추진단을 발족한 후, 대학평의원회에 제안해 대학당국과 통일부의 승인을 얻을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학기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세민전 자주교류에 대한 대학당국의 태도가 이번 추진을 진척시키지 못할가 걱정된다는 김양은 "평양외대와의 자주교류는 총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자주교류로 우리학교의 위상을 높이려 한다거나 우리학교와 실이익과 맞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한다는 식의 천박한 통일의식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통일을 실현하는데에도 의지만이 중요할 뿐이죠"며 대학당국에 냉정한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교류하자는 요구도 높아지는 지금, 방북취재를 실질적으로 성사시키겠다면서 단호한 결심으로 말을 마친 김양.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

방북취재 추진 중인
김겸신(자연 · 화학 97, 언론협의회 의장)

때를 상기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다.

"정상회담 때 많은 언론사가 취재를 갔죠. 언론사마다 신문에 내보낸 사진의 느낌이 다른 것은 이북동포에 대한 동포애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요. 언론의 역할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혜나 기자 mimo329@hanmail.net

기고글

"평양외대와의 자매결연으로 우리가 만남의 첫 발을 내딛자구요"

북한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였다.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가장 가까이에 있던 바로 우리의 민족이요 핏줄인 북한은 가 볼 수도 소식을 알 수도 없는 나라였다. 우리 민족이 원한 분단이 아니었기에 통일의 염원은 더욱 간절하다. 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그 동안 많은 방법을 통해 나타났고 그 한 주체인 학생들은 무엇보다 학생신분에 맞는 교류와 통일의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 동안 세민전을 준비하면서 용인배움터는 북한의 평양외대와의 교류를 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수 차례 계획의 차질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오히려 학생들의 통일의지마저 꺾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다. 올해 세민전이 평양외대와의 자주교류를 진행하려는 것은 '전에도 했으니까' 하는 식의 예전에 했던 것을 답습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통일음악회, 농구단 교류와 사람들의 김탄을 자아냈던 교예단까지 만나고 있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해 현재 한반도의 전시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꾼다는 것이 가장 큰 뜻을 지닌다.

이번 세민전에서 자주교류의 의미는 통일의 주체인 학생이 만남의 첫발을 내딛고자 함이고 외국어를 배우는 고유한 특징을 지닌 외대, 그리고 입수경 선배로 대표되는 통일의 성지인 이곳 용인배움터에서 시작하고자 함이다.

세민전에서는 자주교류의 가장 핵심 부문인 평양외대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자매결연은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분야에 대한 학술, 문화교류를 말하며 가장 적극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다. 특히 용인배움터에 있는 동유럽대학의 경우 아시아권에서 북한을 빼고는 없기 때문에 북한과의 학문적 교류는 절실히 필요하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통일의 주역인 학생들의 교류가 더없이 중요한 시기이다.

더욱이 얼마 전 전남대가 북한의 김책 공업 종합대와 학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미 98년도부터 자매결연을 추진해왔던 우리 외대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한양대가 북한에 건축과 전자 관련 분야의 대학을 설립하는 계획을 북측과 협의, 추진 중인 것으로 5월 10일 알려졌다. 북한의 대학과의 교류는 단순히 외국의 대학과 교류한 차원을 넘어서 많은 의미를 지닌다.

우리학교도 북한의 평양외국어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학술적 교류로 같은 외국어분야를 연구해왔던 성과를 나누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다음세대의 주체인 남한과 북한의 대학생들이 다른 문화를 체험함으로서 서로의 거리감을 극복하고 이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민전 자주교류 추진 중인
박근영(동학 · 일본어 97, 세민전 자주교류 주체)

더욱이 자매결연은 조규철 총장의 공약으로 이미 자매결연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정상회담의 개최가 합의된 상황에서 학생들과 대학의 만남은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낯설게만 느껴지는 북녘 유적땅을 밟아보고 싶어요"

평양성, 대동문과 평양종, 동명왕무덤, 단군릉…

낯설게만 느껴지는 북녘의 문화유적 명소다. 그러나 낯선 유적지를 밟으면서 역사의 숨결을 호흡하려는 이가 있다.

"50년동안 남북 분단이후 남북한 학자들은 우리나라 역사인식에 대해 엇갈린 생각을 보이고 있어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남겨진 발자국과 같은 문화유적을 대하는데 있어 각기 다른 학자들을 보며, 통일이 앞당겨져야 역사인식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라는 정순영양.

정양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에서 모집하는 '북녘 단군릉 유적답사단 모집'에 신청한 우리학교 새내기다.

다음주에 열릴 서울배움터 세계영화제에서 영상사업단 단원으로서 '반미영화제'와 '자주교류문화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지난 여름농활 때에는 풍물패로서 활약을 보였던, 하내에서는 그야말로 활동상이 두드러지는 사람 중 하나다.

이번 '북녘 단군릉 유적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풍물패, 영상사업단 활동… 이런 활동을 통해 정양이 찾는 것은 단지 하나다. 우리의 '전통과 민족성'.

아직 답사단으로 지목되지도 않았는데 그만한 기대 때문인지 요즘 정양이 선배들과 주고 받는 대화의 주제는 주로 유적답사에 대한 이야기란다.

"이북은 우리나라의 전통성을 찾기 위한 작업으로 고대유적과, 유물을 복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요. 단군릉에 있는 2개의 유골 가운데 하나는 단군, 다른 하나는 그의 부인의 것일 거래요. 북한 역사학자들이 방사선 조사로 안치된 연도를 추정해 봤는데, 거의 5천년 가까이 된대요. 선배들의 이야기만으로는 반신반의 했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들춰보고 나니, 5천년 전에 평양에 고조선이 세워졌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되죠. 5천년 전의 뼈가 아직도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라며 신기한 듯 묻는다.

그러면서 남한의 학자들은 북한의 실험결과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남한에 북한 유적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고조선으로 세웠다고 추정하는게 지금 남한학계의 수준이라고 말한다.

유적 답사를 떠나면 어디를 가고 싶은지, 가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등 쏟아지는 질문에도 차분히 대답하는 정양은 "아직 선발되지도 않았는데요, 뭐"라고 수줍어 하며 "우선, 가기전에 북녘 유적에 대해 공부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서 꼭 공부를 할거고, 가서는 유적을 보고온 감동을 마음 속에만 간직하지 않고 영상사업단인 만큼 비디오 카메라에 담아오고 싶어요. 그래서 저처럼 가고 싶어하는 주변 친구와 선배들에게 보여주어야죠"라며 손가락을 하나 하나 접으면서 해야할 일을 정리한다.

정양말고도 주변에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냐고 물으니 "얼마나 많은데요. 신청서 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첫날에는 '네가 진짜 갈수 있어?' 하던 친구들이 이튿날에는 '가면 정말 좋겠다' '사진 많이 찍어와라' '데리고 가면 안되나?'고 난리예요"라며 은근한 자랑을 늘어놓는다. "예전에는 한총련 방북대표들이 국가보안법을 몸으로 어기면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통일의 분위기가 좋아져 합법적으로 갈 수 있다니까 그런지, 북녘땅에 간다는 것을 잠시 여행 갔다오는 것처럼 느껴요. 저도 대학생으로서 남한 유적이 아닌 북한의 유적을 답사한다는 가벼운 맘이구요"라는 정양의 말 속에서 넘지 못할 산 내지는 험겹게 넘었던 신이었던 방북이 발걸음만 옮기면 넘을 수 있는 평탄한 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

각 대학을 대표하는 200여명의 학생들이 불법도 아닌 합법적으로 북녘 유적 답사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막아서지나 않을까가 정양이 하는 최대고민이라는데 "남북장관급회담처럼 정부관계자들만 만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통일은 모두가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대학생들이 있는 거구요"라며 '만남이 곧 통일'이라는 확신에 찬 말을 남긴다.

머지 않아 낯선 북녘 문화유적지에서 조금씩 낯익어하며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비디오 촬영을 하게 될 정양의 모습을 그려본다.

우혜나 기자 mimo329@hanmail.net

북녘 단군릉 유적답사 모집에 신청한
정순영(서양 · 서반아어 00)

역사의 오명을 씻기 위해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발표로 온겨레의 통일의지가 드높아지고 있다. 조국통일을 염원하고 투쟁한 칠천만 겨레의 힘으로 남북 두 정상들은 화해와 단합의 시대를 열고 우리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온갖 반통일적인 망언과 망동을 일삼으면서 분열주의자로서의 자들의 정체를 더욱 드러내보인 극우익 보수세력이 비전향장기수들이 북송된 것을 계기로 갖은 험담을 늘어놓고 있어서 사람들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합의들이 민족의 축복과 지지속에서 실현되어 갈수록 그들의 반통일적인 행각들은 도를 더해 가고 있다.

이산가족이 수십년만에 만남을 가지고 비전향 장기수들의 북송이 실현된 데 대해 남과 북이 다 기뻐하고 있고 또 그들이 남으로 북으로 간 날은 TV와 신문을 통해 다 보았듯이 한반도가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다. 그런데 오늘 극우익 반통일 보수세력은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이러한 초보적인 자세마저 망각하고 북측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를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분단과 전쟁으로 기생하는 이유로 반북대결을 고취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극우보수분자들의 체질화된 미국배족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통일지향세력이 자주적으로 단합된 힘에 기초해서 민족의 분단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분열주의세력은 분단의 원인인 미국에 의거해서 국토분단을 영구화하려고 꾀하고 있다. 극우보수분자들의 사대매국은 빛달 후에 있게 될 미대통령 선거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면서 그 대응책을 취하고 있는 행태를 보고도 잘 알 수 있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미공화당의 부시후보는 강경보수세력인 저들의 입장을 담은 선거공약이라는데서 계속해서 6·15공동선언의 발표나 미사일 개발중지, 평화를 위한 이북의 행보에는 관심이 없고 있지도 않은 북의 남침에 대해 떠들면서 실현가능성도 없을뿐더러 자국내에 반대여론과 국제여론에도 불구하고 TMD(전역미사일방어계)를 수립해 군사전략적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극우보수자들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빠져있는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에게 기대를 걸면서 미공화당 전당대회에 대표자를 보내는 등 수치스런 구걸행각 반북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명색이 한 나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러니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외세와 야합해서 반북대결을 고취하는데 체질화된 극우분자들이기에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을지포커스렌즈 합동 군사 훈련을 벌여놨을때도 남북의 화해와 단합의 시대에 이북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훈련을 전면 중지할 것에 관한 겨레의 요구에 배치되게 훈련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귀환문제가 해결되야 한다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반대하고 그에 훼방을 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이 분열주의적인 망언과 망동을 일삼고 있는데는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해보려는 당파적 목적도 탑겨져 있다.

바로 얼마전에도 이북에서 조선노동당 창건 55돌을 맞이하여 이틀 계기로 남북의 좋은 분위기를 발전시켜보고자 각 당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한 정당은 국민의 여론은 안중에도 없이 이북의 통일전선전략이니 뭐니 하면서 반대했다.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모 정치인, 즉 반북대결을 고취하는 건 이러한 극우보수분자들의 생존방식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파적 목적만을 추구하면서 민족반역행위를 일삼는 극우보수분자들, 이 역사의 오물들이 청산되지 않고 정치무대에서 목소리를 높히는 이상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조성될 건 명백하다.

또한 반통일 세력들은 분단과 대립의 시대의 유물이며 이북을 적국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라는 칼로 통일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묶으려 하고 있다.

통일을 지향하고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합의하는 이들은 모두 반북대결이 생존방식으로 체질화된 반통일세력의 정체를 똑바로 알아 내고 그들의 무기로 쓰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과 극우보수정치인들의 반통일 책동, 국가보안법과 같은 역사의 오물들을 청산해야 한다.

국토분단을 영구화하려는 반통일책동은 타율에 의한 분단을 마감하고, 온 겨레가 자율에 의한 통일을 이루는 험한 진군을 기대해 본다.

윤기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상임 부의장〉

한마디 한글

외대앞 간판으로 본 한글 씀씀이 진단

간판속의 우리말이 사라지고 있다

"도대체 여기가 우리 나라인지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수다"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졌던 지난 8월 말 서울거리를 돌아보던 북한 동포의 난감해하던 모습이 텔레비전에 방영 되었다. 북한동포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외래어가 남발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한글씀씀이는 어떠할까? 지난 9일(월)은 세종대왕이 온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반포한지 554돌이 되는 한글날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근거리, 외대주변 간판들을 통해 현재 한글의 쓰임을 살펴보고자 용인배움터는 모현입구~학교까지, 서울배움터는 외대앞역~학교정문까지의 간판을 조사, 우리말 통계를 내보았다.

편집자

서울배움터 전체 134개의 간판 중 '비스마르크' '베이컨' '외대리안' 등 외래어 간판이 62개로 약 66%점도, 이에 비해 '안녕만화' '옛골' 등 순우리말 표현의 간판은 9개, 전체 6%에 지나지 않아 간판이름에 외래어 쓰임정도가 현격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배움터는 외래어 간판이 전체 62개중 31개로 약 50%, '철판과 친구들' '왕이모네' 등 순우리말 간판은 10개, 전체의 18%로 나타나 서울배움터보다는 순우리말 간판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외래어표현이 아닌 'izzy, TAKE, Twinkle, OB-CAMP, Free Mart, joy o' clock' 등 상호가 영문 그대로 표기된 간판들은 각 배움터별로 30%가 넘게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가 영문이 아니더라도 'coffee, beer, soft drink, snack, soju' 등 간판 어디라도 한귀퉁이에 영문이 적혀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같은 영어상호로 외국에 로얄티를 지불하는 패스트푸드점, 옷가게, 영화관 등이 점차 늘어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우리 학교 앞에도 'KFC, buy the way, pizza hut- home service' 등 영어상호를 쓰는 외국기업들이 뿌리를 내렸다.

이러한 추세에 한술 더 뜨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다. 영어가 남발되는 풍토에 발맞춰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이름을 영문으로 바꾸고 있다. 유공이 SK주유소, 제일제당이 chelichedang 등으로 바꾸는 등 이와 같은 예는 요즘 흔히 볼 수 있다.

지난해 조흥은행 역시 'CHB'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을 했다. 조흥은행 홍보실에 근무하는 김현우씨는 "요즘은 세계화 추세이며, 이미 홍콩 SBC를 비롯한 외국 은행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이에 외국은행들과 이미지 경쟁에 맞추기 위해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며 "신뜻하다' '젊어졌다'는 좋은 평가를 듣고 있다고 전한다. 기업이름을 짓는(이 작업 또한 네이밍이라는 영문 호칭을 사용한다) 디자인회사 인피니트 네이밍팀장 박재현씨는 "각 업종별로 특성에 맞게 경향과 유행은 다양하다. 특히 요즘 금융계에서는 굿모닝증권, CHB와 같이 영문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금융계 자체가 국제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한다. 외국 사람들에게 '조흥은행'이라는 한글이름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박팀장은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서 영어를 써주는 것은 전문적 서비스를 연상하게 된다"며 우리나라사람들이 외국어 특히 영어에 호의적 아니 절대적인 이유를 꼬집었다. 이런 논리로 세계화추세에 발맞추다 보면 한글은 쓰지 않아도 좋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중국에 사는 2백만 조선족들이 한결같이 조상에게 고마워하고 감격해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세종 대왕과 그가 만들어 낸 한글이라고 한다. 우리 문자를 백 년 넘게 간직하고 지키면서 살아온 조선족을 보면 더 이상 거창한 말이 필요 없는 정도다. 중국 조선족 자치주인 옌볜에 가 보면 간판마다 앞줄에 한글이 적혀 있고 아래쪽에 한자가 있다. 이곳을 찾았던 한국인들은 새삼 "중국에 마치 작은 한국이 있는 것 같았다"며 뿌듯한 감동을 전한다(월간중앙 1999년 6월호)

간판이라는 생활 속 작은 소재를 통해 한글문화를 바라본 결과 아침에 학교에 나오며 'buy the way'에서 우유를 사고, TAKE에서 저녁을 먹을 때까지 수많은 외래어 간판속에서 한글과 괴의 위험성을 느끼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했다. 지난 1993년 옥외광고물 관리법 중 한글쓰기 규정을 보면 "모든 옥외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 국어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어를 쓰게 될 때는 한글과 함께 씀.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하도록 함"이라는 대통령 시행령 13조 발표가 되었었다. 이 유명무실해진 법이 한글심리가 차원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추세, 영어공용어에 대한 일방적인 맹신만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어쩌면 우린 국적불명의 곳에 서있게 될지도 모른다.

윤홍은기자 happyend21@hanmail.net

우리말글 현대사

우리나라에서 공용어(한자나 한문을 두고는 공용문자라고 해야 되겠지만, 여기선 말글을 아울러 일컬음)는 20세기만 해도 네 번이나 바뀌는 역사가 있었다. 한자, 우리말, 일본말, 영어 네가지다.

그중에서 삼국시대부터 써 온 한자의 역사가 제일 깊다. 15세기에 와서야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을 만들며 국어(국지어음)가 처음 나타나고, 19세기말에 국어부흥 운동이 일어난다. 이어서 영어(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등과 합쳐)와 함께 일본어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이 시기 공용문자는 한자를 포함한 일본글이었지만, 또한 국한문혼용으로도 썼다.

1921~1945

1921년 최초의 민간학술단체 '조선어연구회' 창립되고 1931년엔 '조선어학회', 1949년엔 '한글학회'로 이름바꾸어 가며 일제치하에서 우리말을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 그리고 지금의 한글날에 모태가 되는 '가가날'을 정해 한글 반포를 기념했다. 하지만 일제시대에는 창씨개명 등 민족말살정책에 따라 우리글,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해방 후 1945년 9월 이후에 이 나라에서 공용문자 또는 공용어는 영어였다. '조선주민에 대한 태평양 미국 육군총사령관 포고문 제1호'에서 이를 명문화했다. 미포고문에는 "군정기간에 영어를 가지고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함. 영어와 조선어 또는 일본어 사이에 해석이나 저의가 불명, 부동이 발생한 때는 영어를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945~1990

1948년 정부수립 뒤 우리말, '한글'은 비로소 공식적인 국어가 된다. 그 해 제헌국회에서 법률 제6호,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1948.10.9) 또한 영어는 이때부터 하나밖에 없는 제1외국어란 지위로 불려난다. 광복 후 남쪽에서는 미군정을 거치고 정부가 선 뒤, 제1외국어로 중학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반면, 북한쪽은 소련과 중국의 영향으로 러시아어, 중국쪽 한자가 쓰이게 된다. 1968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 전용 촉진 7개항을 발표한다.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문서, 민원서류를 한글 전용으로 하며 국내에서 한자가 든 서류를 접수하지 말 것, 각급 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없앨 것 등 7개 조항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이희승 등 국어학자 140명이 한글전용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74년에는 '교과서 한자 병용 방침' 발표하고 다시 76년 초등학교에서는 한자교육을 부활 않기로 발표하는 등 줏대없는 한글정책으로 일관해왔다.

1990~현재

91년부터는 한글날을 국경일에서 빼고, 92년에는 남북한, 프랑스에서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표기법 통일안에 합의했다. 현재는 영어는 초중등, 대학을 지나 각종 기업체 입사에 필수적인 학문으로 자리잡았다. 즉, 영어는 돈과 출세, 권력, 명예로 이어지는 조직적 연장이자 관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조기영어교육은 물론이고, 영어능력 시험이 의무시험이 되고, 거기에 대학재학중엔 어학연수를 가는 것이 바람을 넘어 관례로 굳어진 듯 하다. 이밖에 1999년 도로 표지판과 공문서에 한자 병용, 김종필 총리와 신낙균 문화 관광부 장관은 도로 표지판과 공문서에 한자 병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요즘은 또한 로마식 문자표지판을 추진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홍은기자 happyend21@hanmail.net

생활비꿈이

짐 들어주기

학교를 오가는 지하철이나
버스안에서 자신은
앉아 있으며 짐이 무거운
서 있는 친구를 봤을 때
어떻게 하세요?
'너는 젊었건들 서서 짐들고
간들 어떠하리~' 하며
무심히 지나치지는 않는지...
어른들에게는 예절이겠지만,
친구들한테는 친절이겠죠?
우리 한번 말해봐요.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All 활시평

행복한 2등을 찾습니다

'평화의 제전' 스물 일곱 번째 올림픽이 끝났다. 역사상 최다국 출전, 최대 자본투여라는 기록을 남긴 채, 올림픽이 어느새 가장 큰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는 비판 또한 줄을 이었던 대회이기도 했다.

올림픽 마지막날, 마라톤 1등 영웅이 된 에티오피아 선수 뒤로 힘겹게 스물 네 번째로 들어오는 이봉주 선수를 보았다.

1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환하게 웃는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그의 모습은 지치고 그늘져 있었다. 아마도 그에게 걸었던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으리라. 다음날, 예상했던 것처럼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각 일간지들은 '컨디션 조절 실패' '마지막 기대 꺾여'…등등의 기사를 스포츠면 머릿기사로 다뤘다.

이쯤되면 운동선수는 선수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시드니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 한 텔레비젼 프로그램에서는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환희와 좌절의 순간'이라는 이전 올림픽 하이라이트 방송을 했다.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금메달 따는 장면은 '환희의 순간'으로, 은메달을 따는 장면들이 모두 '좌절의 순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던 것이었다. 당시 예상 밖의 좋은 성적으로 배드민턴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던 방수현 선수도 '좌절' 의 순간에 포함되어 있었다.

'1등 아닌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남의 일인 걸…' 이라는 가사의 대중가요 한구절이 와닿는 순간이었다.

한국사회의 병폐를 꼬집는 데 카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바로 이런 현상이다. 메달을 위해 발굴한 선수들만을 집중 훈련시키는 스포츠계나 어렸을 때부터 '학급등수 매기기' 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많이 닮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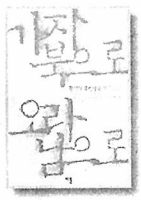
정작 중요한 것은 한 줄로 죽 세워 누가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일 것이다. 탓해야 할 것은 메달 못 딴 선수들과 꼴등한 학생이 아니라 동네마다 체육관 하나 없는 우리나라 체육계 현실일 것이며 한 반에 50명씩 꽉꽉 채워 수업을 듣는 교육여건이라는 말이다.

더불어 '행복한 2등'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좌절의 의미로서의 2등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2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자유는 허용되야 하지 않은가.

문화부장 oedae98@hanmail.net

문화 이야기

새책



황석영 / 이룸 / 8,900원

가자 남으로 오라 북으로

이 책은 작가 황석영이 89년 이후 5차례 방북하여 그곳 사람들을 만나고 느낀 점을 세세하게 정리한 '북한방문기'다. 94년 황석영석방대책위원회가 '사람이 살고 있었네'란 이름으로 펴낸 바 있으나 오·탈자가 많고 제작도 허술해 황씨의 요구로 절판했던 것을 이번에 교정·교열을 새로 보고 내용을 다시 간추린 책이다. 북한을 방문한 지 10년이 다 됐지만 그 사이 제대로 된 방문기가 없었고 주위에서 이 책을 찾는 이가 많아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첫 길목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다시 펴낸다고 그는 밝히고 있다. 평양시내를 누비며 느끼는 민족에 대한 동질감, 이데올로기가 몰고 온 비극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 읽는 이의 가슴 한 켠에 뭉클한 분단의 한에 대한 자각을 되씹게 한다.

김훈 / 생각의 나무 / 9,000원

자전거 여행

언론인 김훈(52·'시사저널' 편집국장)씨가 산문집 '자전거 여행'을 펴냈다.

지난해 가을부터 올 여름까지 스스로 '종륜'(風輪)이라 이름붙인 자전거를 타고 후미진 산골과 바닷가 마을까지 두루 돌아다닌 끝에 길어올린 기행문등 31편이 묶였다.

서정어린 지은이의 시선은 경주 감포를 '무기의 땅, 악기의 바다'로, 영일만을 '태양보다 밝은 노동의 등불'로 보았는가 하면, 마암분교에서는 '꽃피는 아이들'을 봤다.

마문이되 힘이 느껴지는 필치가 어느 산자락, 바닷가 한 귀퉁이를 돌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낸다.

공연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의 무대에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곳곳에 서려있다. 현대사의 아픔에 대한 주제를 버라이어티한 뮤지컬쇼 형식으로 담되 드라마적 무게를 잃지 않은 이 작품은 연기자 임동진이 제작자로 김자옥, 조형기 등 초호화출연진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함께 가슴으로 울었던 지난 8월의 감동. 그 이상의 감동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정서에 맞는 제대로 된 우리 뮤지컬이다.

일정: 10월 3일(화)~10월 8일(일)
시간: 오후 4시, 7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입장권: R석-6만, S석-5만, A석-4만, B석-3만, C석-2만
문 의: 세종문화회관 인포샵(399-1700)

인터넷 나들이

http://www.workingvoice.net

이 사이트는 파견,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노동자등 노동권과 사회적 시민권의 시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자하는 한국비정규센터(kcwc)에서 만든 종합 사이트다.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정의, 비정규 직종 관련 기사와 칼럼, 리포트, 주장과 대안, 법률상담, 모임 안내 등을 서비스 하고 있다.

웹진이 발행되고 있으며 연중기획 '비정규 노동의 시대, 이렇게 바꾸자' 시리즈는 주목할 만하다.

119센터는 온라인 법률상담 센터로 100문 100답,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 서로의 유용한 정보를 나누는 만남의 장인 BBS는 게시판과 알뜰장터 등이 개설되어 있다.

흩어져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종합 사이트다.

지상중계 - 세계민속공연

2000 세민전

다른 문화 속 공유되는 기쁨과 슬픔

세상속에 여러민족이 함께 살아가며 공유할 수 있는 느낌이란 과연 무엇일까?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 죽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의 감정일 것이라고 세계민속공연은 이야기해주는 듯 했다.

지난 6, 7일(토) 양일간 여의도 KBS홀에서 '새 천년 그 희망의 종소리' 2000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민전) 둘째주 행사이자 세민전의 꽃으로 불리우는 세계민속공연(민속공연)이 개최됐다. 이번 민속공연의 주제는 '인간의 삶'으로 '축제' '혼란' '새로운 희망' 총 3부로 진행되었다.

우주공간에서 지구가 탄생하고, 생명이 발생하는 것, 새싹이 자라고 아기의 신장박동소리가 점점 커지는 등의 경이로움을 형상화한 영상물이 찻미당의 분위기를 숙연하게 한다. 어느새 무대위에는 검정 베일에 싸인 여인들이 손목과 골반, 배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준다. 아랍어과의 '벨리댄스'라고 불리는 이 춤은 다산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배'를 많이 사용한다. 종교적 의식때 사용된 춤이라 배경음악 또한 신비감을 자아낸다. 이어 1부는 신성스런 탄생에서 성장과정을 거쳐 사랑하고 결혼하는 과정속에서 형성된 아름다운 축제의식을 보여준다. 빨간 옷과 모자에 노란 꽃술을 달고 손과 손을 경쾌하게 움직이는 인도네시아의 전통무용인 야롬, 사람을 이룬 것을 하늘에 감사하며 그 사람을 영원히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어디선가 많이 본듯한 노래, 성가복을 입고 이리저리 손을 뻗쳐 흥겹게 움직이는 영어과의 'joyful joyful(시스터액트 2)' 결혼 피로연 때 남, 녀 쌍을 이루어 추는 체코의 폴카(polka) 등의 노래와 춤도 기쁨의 축제 속에 잘 나타난다.

1부의 축제의 즐거움과 상반되는 2부의 '혼란'은 인간의 이기심으로부터 생겨나는 시기, 싸움 대립의 모습이다. 자연파괴, 서로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간사 희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전쟁, 파난, 울부짖음, 싸움 등의 모습들이 어두운 조명과 함께 화면에 펼쳐진다. 전쟁, 죽음앞에 두려운 검정 그림자의 사내들이 빨간 그림자 막 반대편에 서로 칼을 겨누고 있다(일본어과 그림자극). 전쟁을 의미하는 춤인 유고어과의 콜로는 남자들의 거친 듯한 묘기가 눈길을 끌었다. 또한 갑자기 튀어나온 소림사 꼬마들을 연상케하는 중국어과 학생들의 검무와 깃발춤은 귀여운 듯 하면서 절제된 맛을 보여주었다.

이어 씨를 뿌리고 거두는 듯 농사와 관련된 동작을 연상케하는 인도어과의 나쯔나로 3부가 시작된다. 8명의 인도소녀들이 원을 돌며 움직이는 손 동작하나하나에 인도분위기가 느껴진다. 악기는 오직 북하나인데 흥이 절로 나는 아프리어과 민속음악팀 등 인간사의 축제와 혼란을 극복하는 '대동의 장'으로 희망과 밝음이 이어진다. 마지막 공연은 한국민속위원회팀. 관씻음굿으로 시작한 공연은 분단으로 갈라진 민족의 한을 형상, 화합, 통일로 진행된다. 패기와 신명을 담은 이 마당은 가장 호응이 좋았다. 공연 사이사이에 다음 공연을 소개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캐릭터가 화면 속에 펼쳐졌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출연자진이 나와 각각의 나라가 아닌 외대라는 한덩어리로 인사를 하며 공연은 막을 내렸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서울베움터 동아리 페스티벌 폐막제

2주간 울려퍼진 '인권'의 노래

장애인, 여성,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을 주제로 지난 9월 25일(월)부터 10월 6일(금)까지 2주간 펼쳐졌던 동아리 페스티벌의 마지막 행사인 폐막제가 6일(금)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2000 인권선언! 젊음이여, 진실을 노래하라!'는 주제로 한시간 반 동안 펼쳐진 폐막제는 동아리연합회장 이승주(사회·정치외교 97)군의 사회로 진행됐다. 폐막제는 2주간의 행사기간 동안 여성, 장애인, 반 아셈(ASEM), 노동권등 각 팀으로 기투어진 기획단들의 활동을 총괄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첫무대인 기획단의 '다시 떠나는 날' 등의 율동 공연에 이어 지난해 10월 시애틀에서의 WTO회담 반대 시위 영상, 그리고 상식을 알아보는 O, X퀴즈도 열렸다.

이후 손소리샘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수화공연과 에바다 투쟁관련 영상물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물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초기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에바다 사회 복지원 문제 꼭 해결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이사회측의 계속된 비리, 폭력으로 원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에바다 사회복지원 투쟁과정이 이어져 나오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지점을 일지형식으로 담았다.

영상물 상영 후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으로 길러지는 것이다"는 인권기획 팀 단원의 말을 끝으로 본행사는 막을 내렸다.

이어 플랭카드 천 위에서 구르기,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구름 사다리 넘기 등의 대동놀이가 진행됐는데 이는 '그간 쌓였던 모든 감정과 스트레스를 탈어버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인권'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2주간 선전작업과 동아리 자체행사도 진행한 이번 동아리 페스티벌은 분과별 체육대회도 진행하는 등 다양성을 추구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각 동아리나 일반학생들의 참여가 낮아 기획단만의 행사로 그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행사를 준비한 동아리연합회장 이승주(사회·정치외교 97)군은, "준비기간이 짧아 실무작업에 차질이 있었지만 행사를 준비한 기획단 학생들이 여성,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한 학내흐름을 만들었던 것이 성과인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문화부 oedae98@hanmail.net

알림

이번주 '외대인이 외대인에게'는 지면관계상 한주 쉽니다

외대학보

문화단신

서울

서반아어과 'LOS NOVIOS' 세번째 정기공연 열어

오는 13일(금) 늦은 6시 30분에 대강당에서 서반아어과 노래패 LOS NOVIOS의 세 번째 정기공연이 열린다.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작년엔 인자문제로 치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정기공연을 통해 학회가 잠잠한 상태에서 깨어나 다시 날고 싶다"며 이번 행사의 의의를 회장 유웅(서양·서반아 99)군은 전한다. '비상'이라는 부제가 있는 이 행사는 Volare의 talisman 등 19곡이 공연된다.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즐겁게 관객들과 호흡하며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유군은 덧붙인다.

9일(월) 우리말 연구회 한글날 행사

지난 9일(월)에는 우리말연구회의 준비로 554돌 맞는 한글날 행사가 붉은 광장에서 열렸다. "한글날의 의의를 살리고, 오늘 하루라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있는 한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우리말연구회 회장 문희용(상경·경영 99)군은 이번 행사의 기획의도를 전한다.

모든 학우들의 참여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아침 등교길에 선전물을 돌려 한글의의를 알리고 또 한글에 대한 문제를 풀어오면 선착순으로 상품을 주어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11시부터 1시사이에는 한글에 대한 OX퀴즈도 하였다.

특히, 이번행사를 기해 지난학기 학교건물마다 순우리말로 지은 이름을 넘리 알리고 홍보하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는 문군은 "순우리말로 건물이름짓기의 호응이 좋았다. 그러나 생활속에 그것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모두의 힘이 필요한 것 같다. 앞으로 우리의 이야기 문화속에 우리말이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바램을 전했다.

용인

마스터피스 여덟 번째 음악회

오는 10일(화) 늦은 5시 30분에 클래식 음악동아리 마스터피스의 준비로 여덟 번째 음악회가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다.

'맑은 선율로의 초대'라는 부제를 가진 이번 음악회는 피아노트리오로 연주되는 헝가리무곡을 비롯해 사랑의 인사, 사랑의 찬가, 사랑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첼로독주 등 7~8곡이 준비되었다.

특히 고전음악 동아리 비나리의 찬조합주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회장 김형석(전자산업공·제어계측공학 99)군은 "클래식이 절대로 상류층 음악이라든가, 어렵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누구나 가깝게 즐길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만들어가고 싶다"고 전한다.

누리에, 흑백사진교육강좌 열려

사진 동아리 '누리에'가 지난 4일(수)부터 6일(금)까지 삼일간 학생회관 4층 누리에 동아리방에서 흑백사진교육강좌를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초급과정으로 사진의 전반적 내용을 쉽고 재밌게 배울수 있고, 또한 스스로 사진 작업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더 나은 나를

반쪽의 언어를 찾아서

베차다 〈4〉

매일 수업이 끝나고 기계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하루일과는, 몸이 약한 홍은이에게는 퍽 **베차다.**

베차다-해내거나 견디기에 좀 벅차다.

외대, 해가 지지 않는다 - ④ 서반아어과

여러언어를 배우고 있는 외대. 언어를 배울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매호마다 각과 언어를 선정해 먹거리, 볼거리 등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장을 마련했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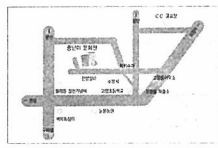
가볼만한 곳

중남미 문화원

중남미 문화원은 이색적인 스페인풍 건축물로 설계자가 중남미 문화원을 지을 때 서구식구조와 우리 전통의 조화를 고려해 설계하여 1996년 고양시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화원은 고양시에 위치하며 그 주변 아산, 아름다운 산책로와 군데군데 놓인 고풍스런 정원용 청동색 벤치들, 스페인식 기와와 파벽으로 웅장하게 건축된 박물관과 미술관, 두 건물 사이의 아담한 정원, 그리고 그와 조화를 이루며 전시된 조각품과 분수대 등이 그동안 들을 기회가 없었지만 귀에 익은 라틴음악과 함께 문화원을 하나로 조화롭게 구성한다. 특히 중남미 문화원은 야외공간에서 휴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 문화원 입구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하면 박물관과 미술관까지 다 관람할 수 있다.

박물관 전시실은 고대의 지혜와 사색이 담겨있는 인디오 토기실부터 카리브해 일대의 유물, 목기와 석기실, 다양한 형태의 중남미 가면들 등 너무도 유명한 마야, 잉카, 아즈텍 문명을 비롯한 중남미 고유의 여러문화를 접할 수 있다. 멕시코산 타일과 퓨터거울 등 이색적 장식으로 꾸며놓은 휴게실은 차도 팔고, 하루 전에만 예약하면 스페인 전통쌀요리 '빠에야'를 맛 볼 수도 있다. 1997년 완공된 미술관은 항아리, 조각품, 목각인형, 가면, 깔개, 주석 그릇, 장신구 등 기념품도 판매하고 정기적으로 주제를 잡아 작품전시회를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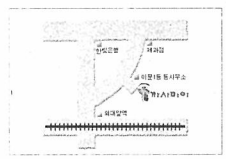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02-1
전화: (031)962-9291
이용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연중 무휴)
교통편: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버스 158-3,322, 32, 35번 버스 이용 고양동 시장 앞 하차, 마을버스 1006번 이용 문화원 앞 하차)



먹거리

CASA MAYA (마야인들의 집) - 멕시코 음식 전문점

외대 근처에 위치한 '까사마야(서반아어로 마야인들의 집이란 뜻)'는 멕시코 특유의 음식인 타코를 전문으로 하는데, 현지에서 직접 전수받은 주인의 손맛과 각종 육류, 야채, 매콤한 살사(소스), 그리고 또르띠야(Tortilla: 옥수수 전병 또는 밀전병)가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기막힌 음식맛이 자랑이다. 대학가에선 보기힘든 전문 음식점인데도 싼 값과 이국적인 분위기로 신세대의 발길이 잦다. 이 집의 매력은 음식맛도 맛이지만 분위기이다. 주인이 멕시코에서 가져온 멕시코모자와 인형 등 특이한 소품들이 펼쳐진 가운데 정열적이고 때로는 속삭이는듯한 라틴음악과 뮤직비디오가 자못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 1동 296-28 1층
전화: 3295-0591
홈페이지: http://www.yescall.com/casamaya

읽을거리

백년의 고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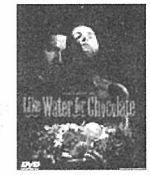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 민음사 / 7500원

'백년의 고독'은 라틴아메리카 '마술적 리얼리즘'의 창시자이며 1982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대표작이다.

라틴아메리카 대륙이 겪어야했던 "역사의 리얼리티를 소멸 해가는 부엔디아 가문의 운명과 함께 들려주는 작품으로 블랙유머와 패러디를 통해 거센 운명의 역사를 헤쳐 나가는 인물군상의 역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렸다.

결말은 비극으로 끝나고 삶 자체는 반복될 수 없으며 한번 지나간 시간을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 삶의 진정한 불안은 바로 반복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서 기인하고 이 공포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유머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작품에서 죽음은 항상 미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이해된다. 또한 '백년의 고독'의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신화를 이야기 속에 도입하고 환상적인 전개를 통해 사실주의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

볼만한 영화



달콤쌉사름한 초콜렛

원제 : Como agua para chocolate
감독 : 알폰소 아라우
배우 : 마르코 레오나르디, 루미 카바조스, 레지나 토르네

요리에 맛을 내는 것은 양념이 아니다. 거기엔 여성의 땀과 눈물, 그리고 삶이 녹아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형부로 둔 한 여자의 비극을 웃음과 환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그 자체로 훌륭한 요리다. 막내딸은 시집을 가지 않고 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야 한다는 전통을 지닌 한 가문을 둘러싼 이야기, 슬픈 현실을 뛰어넘는 마술적 영상이 돋보이는 멕시코영화다. 달콤 쌉싸름하게 보이는 멕시코 요리가 시종 군침을 돋운다. 원작소설은 감독의 부인 라우라 에스퀴벨의 작품, 이 영화로 동경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루미 카바조스의 연기가 뛰어나고, 페드로 역은 '시네마 천국'의 청년 토토였던 마르코 레오나르디가 맡았다. 전미비평가협의회 선정 우수 외국 영화상, 92년 멕시코 아카데미 10개 부문수상, 92년 시카고 국제영화제 각본상 수상등 경력이 화려하다. 이 영화를 봤다면 누구든 '달콤 쌉싸름한' 맛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2000년 10월 10일 771호 외대학보

북한의 정치·사회에 대한 고찰

자주노선과 군중노선 복합된 독특한 정치체제

20세기 마지막 10년, 가장 극적인 정치사의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이었다. 사회주의국가들은 크게 보아, 급진적 방식(소위 big bang)이나 진화론적 방식(step by step)에 의해 체제전환을 겪었다.

이런 사회주의 좌초 속에서 북한전문가와 언론들은 북한이 박뱅으로 해체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수렴의 죽음과 식량난을 돌파해 나갔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중국식의 진화론적 방식에 의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의 '부분적 개혁'의 징점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은 오히려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와 '강성대국건설'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해체' 또는 '개혁'이라는 선험적 판단에 의해 북한에 접근하기에 앞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정치를 한마디로 극명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이다. 다만 몇가지 특성을 나열해 본다면, '자주'를 자기 정치의 생명으로 하고 있다는 점, '관료주의'의 극복을 정치운영의 중요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해결 기제로 '군중노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수령-당-대중을 한몸으로 보는 통일체'라는 독특한 정치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 지향점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점등이다. 이 글에서는 앞의 두 가지를 북한의 역사적 경로에 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주'란 개념의 모태는 북한정권이 자신의 정통성으로 찾고 있는 일제시대의 항일무장투쟁에서 나온다. 25년 창건되어 28년에 해체된 조선공산당의 오류가 국제공산당에 대한 사대주의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교조주의에 있었다고 인식한 김일성이 30년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연설에서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 자체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된다. 한국전쟁 이후 '자주'란 개념을 중심으로 보면,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는 '자주노선'의 정립기라 할 수 있다. '자주노선'는 55년 '사상에서의 주체'로부터 시작되어, 57년 중·소분쟁과 경제원조의 대폭 삭감에 따른 '정치에서의 자주'와 '경제에서의 자립', 소위 '쿠바사태'에서 드러난 미국에 대한 소련의 미온적 태도에 경각심을 느껴 채택된 '국방에서의 자위' 등으로 구체화된다. 70년대는 '자주'를 철학적 개념으로 정식화하기 위한 시기였으며, 현재까지의 마지막 당대회였던 1980년 조선로동당 6차 당대회에서 지도이념으로 주체사상을 규정한 것과 김정일이 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일단락 된다. 이후 '자주노선'은 북한 정치의 준거로 자리잡는다. 그리고 80년대는 수령론이 주체사상에 결합되는 시기였다.

어찌보면, '자주노선'이란 저발전국가로 등장한 자그마한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대국주의'로부터 벗어나고, 미국의 군사적 압력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생존전략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자주'가 '폐쇄'가 아니라면, 또 '폐쇄'는 강요받은 것이었다면, 효율성의 문제는 남겠지만 또 그 변형은 있겠지만, 제3세계가 '세계체제'에 편입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은 '자주노선'을 계속적으로 실험할 것이다. 브루스 커밍스는 소련을 to the mass, from the mass로, 중국을 from the mass, to the mass로, 북한을 to the mass, from the mass, to the mass로 정치의 특징을 말한바 있다. 이는 소련의 전위노선과 중국의 대중노선, 그리고 양자가 결합된 북한의 군중노선에 대한 표현이다. 커밍스의 지적과 유사하게 북한의 군중노선은 "위가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며", "인민의 힘을 믿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을 조직동원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관료주의, 행정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기제로 강조된 '청산리정신'(1961년 발표)의 요체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군중노선의 강조는 사뭇 의미심장하다. 이는 군중노선을 주체사상의 일부분으로 하여 철학적 지위로 승격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붕괴의 제일 요인으로 군중노선을 구현하지 못한 점을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하고 있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여기에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제도 그 자체에도 있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 특히 정치행위자가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사회주의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군중노선의 '자주노선'과의 연관성이다. '자주노선'에 따라 북한은 유일한 발전동학인 인민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군중노선으로 유도하였다는 점이다. 즉 내부 동학을 이끌기 위해서는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는 옳은 노선과 정책을 세우며, 그것을 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군중노선의 내용으로 정립된다. '자주노선'을 견지하기 위한 '군중노선'의 실현이라는 연관을 지닌다.

이승호
〈서울대 북한정치학과 석사과정〉

'왕산학술제' 준비한 기획팀장 박민정(동유럽·체코어 94)양을 만나

"학술축전의 정체성 찾는 학술제 만들겁니다"

오늘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3일간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민전) 셋째주 행사인 '왕산학술제'가 용인배움터 곳곳에서 열린다. 이에 본보에서는 세민전 학술제 기획팀장 박민정(동유럽·체코어 94)양을 만나보았다. 편집자

"학술제는 이번이 처음이며 그 목표는 '성사'이다. 98년에 열린 4회 세민전에서 학술제를 기획했으나 방법, 단위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하는 학술제 기획팀장 박민정(동유럽·체코어 94)양은 이제야 비로소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되었다고 전한다.

"기존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행사여서 처음에는 막막했다"는 박양은 "올해초부터 각 단대와 동아리연합이 연결되어 준비하면서 성격에 맞게 각 학회, 동아리를 '어문관' '인문경상' '기행' '동아리연합' '자연대' 팀으로 묶었다"며 그가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인간'이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학술제는 크게 '전시·자료전' '토론·발표회' '학술영화제' 세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이 중, 전시·자료전은 학생회관 앞마당과 노천극장에서 이북바로알기 거리전을 비롯하여 기행팀의 기행사진전, 자연대 학술전시 및 행사 등 팀별로 준비한 다양한 내용들이 전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매일 늦은 6시에 열리는 토론회 및 발표회는 '이만의 시대를 넘어서 인간의 시대로' '북한바로알기' '한국전쟁'의 주제가 준비되었다.

특히 11일(수)에 세민전중앙과 언론협의회의 준비로 열리는 '북한바로알기' 시간에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 행사의 패널로는 김남식씨와 세종연구소소장이 참여, 대립되는 입장에서 열띤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외대와의 자주교류를 추진하며 막히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는 대학생들은 북한을 추종한다는 천편일률적인 논리로만 일관했다"고 전하는 박양은 "북한의 사상을 객관적으로 이야기 할 때만이 북한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획의도를 말한다. 학술영화제는 10일 다큐영화제, 11일 반전영화제, 12일 북한영화제로 후복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그 밖에 해무리 민중가요 부르기, 북한음식전 등 상설마당도 행사기간 열릴 예정이며 통일연에 소원을 담아 날리는 행사를 끝으로 학술제는 마무리된다.

구분	주제	준비팀	내용
10일	한국전쟁	달바라기, 열린마을, 인플래	한국전쟁에 대한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에 대한 비교분석
11일	북한바로알기	세민전 중앙 자주교류 학술제팀, 인협	북한의 사상 들여다보기!
12일	이만의 시대를 넘어서 인간의 시대로…	시사, 햇새벽, 태국어과 편집부, 루미니어 연구회, 종동문제 연구회	꽃은 자기 나름의 빛깔과 향기를 지닐 때 가장 아름답다. 세계화와 민족주의

일정 / 일정시간	10일 다큐영화제	11일 반전영화제	12일 북한영화제
12:00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양민학살	스탈린 그래드	우리는 묘향산에서 다시 만났다
2:00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세균전	세민전 중앙 자주교류 학술제팀, 인협	북한의 사상 들여다보기!
4:00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매향리	인생은 아름다워	렁리한 너구리

"발표회도 하고 공연도 하는 과의 다른 학회와는 달리 그동안 댓거리 위주로 진행되어온 학술분야 학회들은 학술제를 준비하는 기간동안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며 박양은 이것만으로도 학술제의 큰의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학술 단신

한국-러시아 수교 10주년 기념 세미나 열려

'러시아 정치이해와 한-러 관계 발전 전망' 주제의 국제 학술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교수회관에서 열렸다. 러시아와의 수교 1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 행사는 러시아 연구소장 기연수(러시아어) 교수가 주최, 류보비 포르고르나야 교수 등 현지 러시아 교수들도 초청했다.

외국학종합연구센터, 4번째 '국제지역정보' 발간

외국학종합연구센터에서 네 번째 '국제지역정보'지가 출간됐다. 세계의 지역, 문화, 경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커버스토리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 외, 미국의 경제동향, 유럽연합(EU)의 식품소비 선호도 조사 내용, 일본·중국·인도 등의 기업문화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제2대학 주최 '21세기와 맑스주의' 강연 열려

'21세기와 맑스주의' 강연이 지난 4일(수)부터 18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6시 30분에 열린다. 정보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한 21세기에도 맑스주의는 여전히 유효한가!? 는 주제로 열리는 이 강연은 서울시립대 철학과 이성백 교수가 진행한다. 이 교수는 그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위원장, 진보평론 총무 등의 활동을 했으며, 논문으로 '동구권 변화의 현재 단계'(이론 96 봄) '정보화와 맑스주의'(현장에서 미래를 1998.12) 등이 있다.

장소 : 연세대 공대 구관 1층 A019
참가비 : 3강 총 1만원
주최 : 제2대학 중앙본부, 연세대학교 제2대학, 이화-연세 서부지구 강좌 기획팀
제2대학 홈페이지 : http://altuniv.jinbo.net

이적단체와 해적단체

O…10·10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북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30여개 단체 중 한총련과 범민련은 '이적단체'('이적'은 국가보안법상 적(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란 뜻) 란 이유로 방북이 불허됐는데….

어리둥절한 우리 크로니클자 한마디,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라서 '적'의 영토에 갈 수 없다면 해(害)적 단체가 되면 갈 수 있겠군"

〈2팡〉

O…CHB, SK주유소…

기업들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혹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하나같이 이름을 영문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에 우리 크로니클자 왈

"Ya! Kukjshwada!"

〈홍〉

O…요즘 한참 한국외대의 새로운 관짜기를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하여 '학사구조개편위원회'.

이들은 어문계열을 합쳤다가, 새로운 과를 만들었다가도 한다. 이렇게 한번, 두번 모이다 보니 주위 사람들의 눈치가 잠난이 아니다.

특히 목소리 굵고, 안경 쓰고, 배가 나온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혹시라도 그들이 불쑥치면 판을 가렸다가, 몰래 꺼내어 다시 쓰고….그런데 정작 위원들의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양배움터 학생들이더라.

크로니클 그 소외된 이들에게 한마디 하는데 '너희들 판이 아닌갑다"

〈회〉

누굴 위한 판인가?

알림 사라드립니다

본보 769호 10면에 실렸던 크로니클 '남꽃계의 전설'은 남북자와 남꽃계를 무리하게 비교하는 등 표현상 몰의를 일으킨 바 관계자 외 독자 여러분께 정중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외대학보

비둘기철판

이문벌

□ 알립니다

· 불어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오세요.
언제: 목요일 늦은 5시 30분
어디서: 인문관 5층(1506)
〈불어성경모임〉

· 천국으로 오는 길로 오세요
"나래"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언제: 매주 목요일
어디서: 1호선 망월사 5분거리
016-437-2626(김대경) 011-9927-3558(김나진)
〈연합봉사동아리〉

· 새 일원을 찾습니다. 야생마는 경영학과 축구 동호회로써 매주 토요일 정기 게임을 갖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연령, 학년, 성별에 개의치 말고 연락 바랍니다
018-603-8449(문영수)
〈야생마〉

· 대학원 한국학과 설명회 및 세미나
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 교육의 실제
강사: 허용(외대 한국어 교육과 76학번, 한국 방송통신대 교수)
일시: 2000. 10. 13(금) 오후 5시
장소: 대학원 210호
대상: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관심있는 분 모두
〈대학원 한국학과 학생회〉

□ 책 팝니다

· 신법학 입문(제 3 개정판) 삼우사
변해철 김동훈 이훈동 공저 12000원
국어작문(교재), 국어작문편찬위원회 편, 한국외대 출판부, 4,500원
생활속의 통계학 한림대학교 출판부 이기운 3000원
연락처:016-747-2506

□ 책 삽니다

· 생활과 화학 자유 아카데미
인간 행동과 심리학 / 학지사
〈책 사는 사람〉

왕산골

□ 알립니다

· outsider
글자 그대로 이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음악을 사랑하는 동아리지요
아직 까지 머뭇거리고 계신다구요?
여기 학생회관 지하 B03문을 활짝 열어 보세요
〈아웃사이더〉

· 축구동아리 5기 회원 모집
축구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 모두 오십시오
〈헤르메스〉

· FBS 방송제가 오는 11월 8일 자연대 강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남북문제, 염기, 관음증에대해…
〈외대교육방송국〉

· 인문대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매향리로 가을 농활 갑니다.
〈인문대 학생회〉

· 역사기행 동아리 시간사냥이 00학번 새내기를 모집합니다.
같이 여행을 떠납시다…
〈시간사냥〉

· 물리학과 물리퀴즈대회 12일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접수로 접수하세요.
〈물리학과 학생회〉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30-4112, 4560

전국 국·공립대 투쟁본부 결성식 보도

공공성 확보 위한 국·공립대 연대의 장

사진제공

지난 6일(금) 서울산업대에서는 전국 국·공립대학 투쟁본부(전국투본) 결성식이 열렸다. 대표자회의, 전국투본 문화제, 활동보고 및 결성식 순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서울산업대 정문 앞에서 사전 집회를 가진 후 진행됐다.

정문앞에서는 서울산업대와 서울시립대가 중심이 되어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행사중 만난 정성희(서울시립대·4)씨는 "시립대·국공립대를 떠나서 연대하기 위해 왔다"며, "국립대만의 이기적인 투쟁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권기섭(서울시립대 식품공학과 학생회장)씨는 "교육의 공공성이 무너지면서 그 부담이 민중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국립대학발전계획철회와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꼭 필요하다"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후 국공립대 대표자들이 모여 1차 회의를 진행, 본부장 선출과 각 대학의 상황 보고 후 전국투본의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가 끝나고 노천극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계속 진행된 행사는 추운 날씨와 늦은 시간을 고려해서인지 예전의 행사와는 달리 흥미 있는 많은 문화제가 진행됐다.

이어서 계속 진행된 각 지부 활동 총보고에서는 각 지부의 대표자들이 나와 학교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 지부별로 대통령, 학내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아침 학내 선전전과 오후 대시민 선전전, 그리고 서명전 등을 통해 교육의 문제점을 알려내는 투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성호(서울산업대 부총학생회장)씨는 "신발적 투쟁인 교육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는 단결투쟁의 장, 투쟁의 선봉에 설 조직체를 꾸리는 장이 돼야 한다"고 단당히 말했다. 또 이유민(강원대 총학생회장)군은 "공동체적인 인간을 기르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교육이다"며, "가르치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희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밝히며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항해 투쟁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대표자회의에서 투쟁 본부장으로 선출된 손우정(서울산업대 총학생회장)군의 전국국공립대학 투쟁본부 결성 선언문 낭독과 "국·공립대 발전계획안 철회,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결성식 후에는 2차 대표자 회의를 가졌는데 전국투본 기간의 활동 총화가 보고되었고 향후 투쟁계획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교육부 장관이 5월이나 바뀌면서도 지속되는 교육의 공공성 포기,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교육하는데 1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우리의 교육현실 속에서 자연 입태된 50만 청년들의 '전국 국공립대학 투쟁본부'.

파벌을 떠난 국·공립대학들의 연대는 새로운 연대의 장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전대기련공동기자단

알림

이번호 11면에 연재중인 '그림타래'는 이번주 지면관계상 연주 합니다.

외대학보

만나보기-전국국공립대 투쟁본부장 손우정(서울산업대총학생회장)

"국발안 철회는 우리의 몫"

국투본을 결성하게 된 배경은?

상반기 한총련에서 학원자주화의 일환으로 처음 제안이 되어서 한총련 출범식 때 결성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결성되지 못하다가 지난 9월 7일 국공립대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전국투본을 건준위로 결성하게 되었다. 국발안의 본질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있지만 우선 당면정세속에서 국발안을 철회시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그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투본 구성과 지금까지 활동상황은 어떠한가?

각 학교마다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국회의원에게 공동 질의서를 보냈으며 학우들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도 진행중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학교들은 교육부 항의 방문을 성사시켰다. 또한 국회에서 농성단을 꾸려 압박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었는데 참여가 부족해 진행되지 못하고 이후 실천단을 꾸려 각 학교마다 방문해서 지지투쟁을 했고 학생회와 교육위원회와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전국투본의 차원보다는 각 대학에서의 정책적 방향과 결의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투본을 중심으로한 대학간 연대투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방안은?

기간 국발안에 대한 투쟁의 요구들은 있었으나 그것을 한곳으로 모아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전국투본 역시 지금까지 간준위의 형식을 유지해오다 이제야 공식적 출범을 하게 되었다. 아직 전국투본의 지위체계가 잘 잡히지 않았고 대표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대투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으로 전국투본 일원들의 책임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실질적이 대안이 될 것 같다.

대학노조를 비롯, 각계 단체들과 연대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교수들과의 연대를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국발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결합을 힘있게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공식적인 교류를 통해 연대투쟁을 할 계획이다.

대학노조와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정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직 대중적인 연대집회는 시기상조이지만 공동신문 광고를 함께 내고 공동서명운동을 벌여나기로 결정했다.

우선 시립대 같은 타 대학들의 여론화를 통한 연대를 생각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결정된 사안을 공동광고를 내는 것과 온라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이고, 10월 18일에 각 대학의 동시다발적인 총궐기를 하기로 했다.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미군기지오염, 암·백혈병 발병… 복구비용 10억

얼마전 한강독극물 방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주한미군이 상수원 기름유출로 또 한번 충격을 주었다.

이 사실은 녹색연합의 조사와 미국인 진술확보에 의해 지난 9월 25일(월) 밝혀졌다. 이 사실은 이미 올해 6월 미군기지 지하저장탱크 보수작업을 통해 드러나 미군측은 알고 있었으나 한국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은폐되고 북인되어왔다. 사건이 일어난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소재 미군기지 캠프 EAGLE(부대 Mr.Tuggle)은 상수원 보호구역이자 21만여 원주시민의 상수원인 섬강주변으로 기지 일대가 현재 기름유출에 의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EAGLE기지에서는 "헬기에 주유를 하거나 기름 운반에서 새어나온 기름 찌꺼기를 기름·물 분리기를 통해 강으로 흘려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기름·물 분리기가 아닌 단순한 콘크리트 박스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보여주기식 처리시설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글 기지는 전에도 기름유출에 의한 사고를 여러번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2년전인 98년에는 주유실수로 200갤론의 기름이 한꺼번에 버려지기도 했으며 지난 94년 2월에는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인 섬강 상류에 폐유 4백여리터를 부대하수구를 통해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기름유출 사건은 91년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산곡천 기름오염 사건을 비롯 96년 미군 송유관 파열로 인한 한강 기름오염 등 다른 주한미군기지에서도 90년대 이후에만 9건이나 발생했다.

현재까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주민의 질병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해외의 사례를 볼 때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 필리핀에 있는 클라크 전 미공군 기지에서는 미군이 철수하고 기지로 이주한 주민들에게 2~3년후 각종 암과 백혈병·폐질환·피부병이 발병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뇌성마비에 걸리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95년 이래 80명이 사망했다. 그 지역은 미군의 세차시설이 위치하는 등 크롬·수은·납 등 각종 유독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던 지역이었다. 97년 이곳을 직접 방문한 녹색연합 이유진 간사는 "10명의 어린아이들중 4명이 백내장이나 각종 질병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머지않아 우리나라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환경오염문제의 특성상 담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도 있고 우리 삶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미군은 이런 환경파괴 사고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겨왔다. 현재의 SOFA관련조항으로는 미군의 환경파괴와 오염에 대해 우리나라에 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SOFA 환경관련 조항이 없는 이상 주한미군이 철거한 뒤에도 그 엄청난 복구 비용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진 간사는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미군기지가 95개가 있는데 보통 기지하나의 환경오염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10억이라고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며 오염시킨 주범따로 복구하는 사람따로인 현실에 분노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9월 25일(월)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할 것과 상수원보호지역과 생태계 보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들을 즉각 폐쇄할 것등의 5개 요구안을 발표했으며 미군의 환경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군기지환경특별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환경은 이제 생존권의 문제이다. 설사 미군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있다 할지라도 미군이 철수한 뒤 우리가 우리의 땅에서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또 인간에 의해서만이 보존될 수 있다. 즉 미군의 환경오염 사실을 바로알고 대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민중에게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문제는 이런 환경에서 뿐만이 아닌 성범죄, 매향리 사격장 문제, 노근리 양민학살 등 여러 가지 사안등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토) 서울역에서는 "매향리 폭격장 폐쇄! 환경범죄 책임자처벌! SOFA 전면개정! TMD, NMD 철회! 양민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행동"이 진행되었다. 모든 반미단체가 처음으로 연대하여 시민들에게 미군의 진상을 알리고 규탄하는 시위를 가장행렬과 부스설치등을 통해 알림으로써 더 이상 미군은 우리의 수호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민중의 힘으로 밝히는 자리였다.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한다. "끝까지 미군의 환경문제를 파헤쳐보겠다"는 이유진 간사의 굳은 의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부

사회단신

서울, 황선(98년 한총련 방북대표, 덕성여대 4)대표 강연회 열어

지난 6일(금) 서울배움터 사회과학관 403호에서는 98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방북문화유적답사단 대표 황 선(덕성여대 4)양의 강연이 열렸다.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추진중인 자주교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이 강연에는 약 50여명이 참여했다.

황선양은 98년 방북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음식, 주거생활을 통해 본 이북의 생활문화 ▲북한의 대학생 ▲노동자, 농민 등 일반인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강연했다.

강연 후 간단한 질의 응답시간에는 '이북의 컴퓨터 교육, 관심도는 어떠한가?' '수령과 인민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

강연에 참여한 김정겸(상경·경제 3)군은, "같은 대학생 입장에서 바라 본 북한에 대한 생활문화적인 측면이 흥미로웠고 앞으로 자주교류도 해 보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주한미군, 인천신공항 부지 3,732평 무상사용 요구파문 건교부, 무상임대 불가방침 통보

주한미군의 인천국제공항 내 신규시설 및 토지의 사용료 등을 둘러싸고 주한미군과 건설교통부, 국방부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이윤수(민주당)의원이 건설교통부와 국방부로부터 3일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측은 지난해 8월 국방부측에 공문을 보내 △우편터미널 부지 2293평 △인원대기구역 135평 △주차장 부지 333평 등 모두 3732평의 무상증여를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개항함에 따라 현재 김포공항에 입주해 있는 군사우편터미널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 및 부지가 필요하다는 게 주한미군측의 요구 이유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은 지난해 10월 국방부의 검토 요청을 받고 "인천국제공항의 시설과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의 소유이므로 국가기관 사무실 유료화 방침에 따라 유상 제공될 것"이라고 회신했다.

기획예산처도 향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공사측의 사정을 감안해 관세청 출입국관리소 등 16개 정부기관이 공항에 유료 입주토록 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예산까지 배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항여객터미널의 시설배치가 95~98년에 이미 완료돼 마감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토지의 유상사용을 전제로 수요자(주한미군)가 직접 시설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며 미군측에 무상임대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서평 - 체 게바라 평전

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라

'체 게바라'는 우연하게 자신이 추구했던 삶과 달리 요즈음 들어 티셔츠나 상품화된 물건 속에 그림으로 마주하게 한다. 그의 말은 진지하기 보다 상업적으로 쓰이는 이 기이한 현상들. 이익 앞에 발광하는 사람들은 그의 여정을 쫓아서 말하기보다 그가 가진 결과적인 '혁명'이라는 단어에 더 집착을 하는 듯하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가 그를 평가함에 있어 겉모습만 동경하지 실제 행동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 작은 글이 '체 게바라'의 잘못된 평가와 이해를 바로 잡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소한 사람을 마주하는 것처럼 어색한 일이 없다. 특히 이국적이고 딱딱한 말투가 느껴지는 '체 게바라 평전'을 보는 순간, 이 낯선 만남에 대해 한참을 방황하게 된다. 아르헨티나의 냄새가 물씬 젖어오는 이 책의 어투는 프랑스 기자(장 코르미에)의 여취력보다 더 우위를 점유하고 있어 더욱더 수수께끼의 그림자, 문화의 이질감이 짙게 드리운다.

하지만 어느새 '게바라'라는 인물에 대해 몰입하고, 그의 여정과 함께 함을 우리는 몇 장을 넘기지 않고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 영화감독은 이 책을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가지고 간다고 했다. '게바라'의 게릴라 이미지가 자신의 영화 만들기와 비슷하다고 하면서… '게바라'는 익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릴라 전술의 대가이다. 그는 게릴라가 되어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혁명을 이끌었으며, 게릴라 전술에 관한 몇 권의 책도 썼다. 인생의 기나긴 경험에서 묻어 나오는 게릴라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친숙한 느낌과 값진 간접적 경험으로 새겨진다. 평전이라 다소 영웅적인 형식과 게릴라라는 이름표는 그가 가진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남는다.

우리나라처럼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내는 문화권에서 '게바라'가 거론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뻔한 이치이다. 하지만 '게바라'는 우리가 생각하듯, 혹은 겉으로 드러난 그의 행적만으로 평가받기에는 너무나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연예인 이야기와 우스운 개그가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게바라'는 조용히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다. 잘 포장된 사회의 모순에 저항하면서 그의 또 다른 도전이 死敎(사후)에 진행된다. 그것 역시 게릴라가 아닐까.

여름 무렵, 꿈에 대한 회의와 삶의 지친 언덕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게바라'의 이야기는 筆者(필자)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던 긴 방황을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꿈을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산 '게바라', 아르헨티나아 출생으로 의사가 꿈이었던 그는 미국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남미대륙을 보고 자란다. 결국 측망받는 의사가 되지만, 그의 마음은 늘 편치 못했다. 굶주리며 병들어 가는 남미대륙의 많은 사람들, 의사라는 직업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한적인 영역을 갈등해온 '게바라'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미국의 식민지화가 된 남미대륙(권력가와 자본가의 착취가 활발했던 시기), 그의 결론은 명확하고 분명한 현실이었다. 이미 당시 민중들 사이에서 공감대는 형성되었고, 대변인을 찾고 있었던 많은 남미인들 앞에 '게바라'는 당당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하지만 거대한 자본주의와 권력의 봉우리에 놓여있던 미국과 허수아비 남미국가 정부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가 가진 많은 경험과 의욕적인 청년 '피델 카스트로'를 만났을 때, 그 둘의 운명은 혁명과 같이 한다. 이상적인 국가 건설의 본보기를 쿠바에서 찾고자 했던 청년들이 보트에 스무명 남짓(그 안에 '게바라'가 있었다)이 타고 쿠바로 향하였다. 그날 이후 미국의 원조를 받아 자신의 이익만을 차리고 있던 쿠바 정부를 몰아내고 진정한 민중적인 국가 건설을 위해 혁명을 가행한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그의 별명 '체'와 게릴라 전술은, '게바라'의 이미지로 남게 된다. 마치 홍길동 이야기처럼 진행되는 이 실화는 결국 쿠바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게바라'가 단지 혁명에 만족하고, 자신이 가진 지적 능력과 우월성에 합리화를 했다면, 그의 평전은 쓰레기통 속에 잠자는 휴지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성실한 사람으로 민중으로 남기를 원했으며, 아픈 이들과 함께 하는 의사로 남기를 바랬던 것이다. 쿠바의 중요 직책을 맡으면서도 그는 일정 시간을 사탕수수밭에서 농사일을 도왔고, 부를 축적하기 거부하고 공무원 월급만을 받기를 고집했으며, 밤새워 책을 읽던 독서광의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혁명 중에 그의 잠은 새벽에 이루어지곤 했는데, 그것은 책을 읽기 위함이었다. 다양한 독서는 그가 가진 경험과 어우러져 사르트르나 당대의 지식인들과 대화에서 그는 언제나 당당하게 의견을 토론할 수 있었다. 성격이 강직하고 맑스의 책을 읽기 좋아했으나, 맑스처럼 행동하기를 거부했던 '게바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이나 혁명가와는 사뭇 다르다. 성실하고 정직한 생활과 변치 않는 꿈을으로 그는, 쿠바의 중요 직책을 사퇴하고 아프리카와 다시 남미로 혁명군을 조직해 긴 싸움을 준비한다. 모든 인간들이 자본을 떠나 행복하기를 바랬던 '게바라'는 생각 속에 머물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고, 볼리비아에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자신이 이십대에 가졌던 꿈을 버리지 않았다.

프랑스 기자의 정갈한 문체로 이어지는 그의 일기와 글이 전개되는 평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을 준다. 그것은 정지하는 일시적인 충동이라기보다 멀리 퍼져 가는 동심원과 같다. 맑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는 사상에 맹목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가장 중대한 문제는 사상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다. 바로 인간, 그 따뜻한 사람이 모인 공간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필수 불가결한 흐름으로 가는 현장에서 마냥 보고 있는 사람 중에 '게바라'도 서 있었지만, 그는 그 물결의 방향을 미비한 힘으로 막아보려고 한 것이다. 비록 게릴라라는 폭력적인 방법을 모태로 했지만(그는 포로를 죽이지 않았다), 그러한 방법 이외에 다른 결정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역사가 잘 말해준다. 아직도 남미의 국가는 미국의 지배력 안에 놓여 있다. 물론 멀리 떨어진 한국도 예외는 아닐 수 없다. 혹은 넓게 생각하면, '게바라'처럼, 자본주의 안에 갇혀진 '나-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상품화 속에서 소비하는 모습, 경쟁의 대열에서 쏟아지는 문제의 해결을 이기적으로 풀어야 하는 자신, 대학 안의 자신을 발견할 때 사뭇 그를 떠올린다.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범하기 쉬운 오류는 현 쿠바 정부에 포함된 '게바라'를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가 펼친 무대는 쿠바가 아니었음을, 그의 인생이 쿠바나 게릴라에만 국한되지 아니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체 게바라' 평전이 어렵다면, 그것은 문화적 차이이기 보다 삶에 대해 진지한 고찰이 없다고 믿는 편이 낫다. 혹은 아직도 이 책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삶에 대해 혼자만이 영위하려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일 것이다. 평생토록 편안한 잠자리를 거부하며, 의사로써 사상가로써 농부로써 살고자 했던 '게바라', 흙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모두가 공평할 수밖에 없는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그의 삶에 갈채를 보낸다.

비록 타국에서 벌어진 어느 사람의 일대기이지만, 시대를 함께 하는 사람은 가슴 깊이 이해하고 감동할 것이다.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걸어갈 수 없다. 그 역시 그러기를 바라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작은 전투를 경험하고 있는 게릴라일지도 모른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자칫 안일하게 생각하는 지식인들에게 '게바라'는 고흐의 그림처럼 강렬한 빛깔을 당신에게 줄지 모른다. 짧은 지면에서 '게바라'의 여정을 보여주지 못해 아쉽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이라면 '체 게바라'를 읽고 그의 생각을 기억하기 바란다. '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라'

김정영
〈자연대 대학원 · 화학과 1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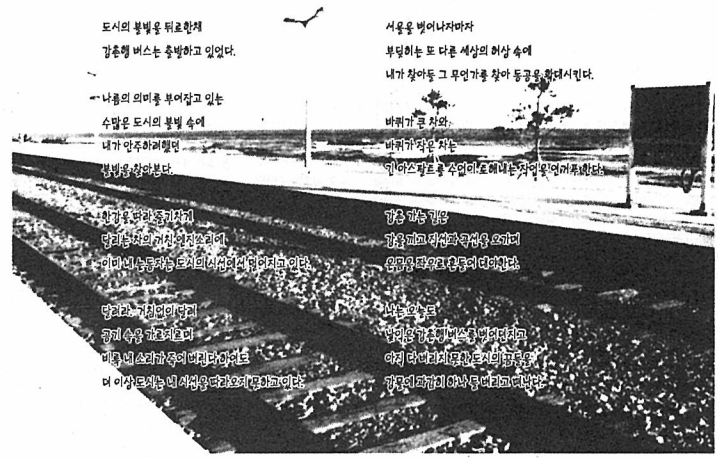
사

"노는 땅에 이것저것 심어놓고 키우는 재미가 솔솔해"라는 우학만 아저씨.
학생회관 뒷 편에는 '농학박사'란 별명을 갖고 있는 아저씨만의 작은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다.
화학비료 대신 애정어린 손길로 푸릇푸릇 선명한 녹색 옷을 입고 무럭무럭 자라는 배추, 열무, 호박…
빈 공터를 활용해 넉넉함과 따뜻함을 키우는 아저씨에게서 따뜻한 시골 흙냄새를 맡아본다.
-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뒷편 공터에서 -

사진부 기자

강촌가는 길

김 용만〈정보산업공 · 컴퓨터공학 94〉



www.hufs.ac.kr/~weekly

'외대학보' 집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 곳은 외대인 누구나 편히 들렸다 갈 수 있는 집입니다. 주인은 바로 외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집들이'를 꼼꼼하게 한 후 계속 들려주세요. 재미있고 내용성있는 것을 많이많이 준비해놓겠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